조선의 유적유물

조선의 유적유물

조선 · 평양
외국문출판사
주체102(2013)년

5 000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조선민족은 장구한 기간 수많은 민족문화유산을 창조하였다.

조선민족이 창조한 문화유산가운데에는 조선이 인류문화 발원지의 하나라는것을 보여주는 대동강문화를 비롯하여 세계최초의 철갑선인 거북선, 세계적으로 이름난 첨성대, 고려자기, 금속활자와 같이 조선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와 훌륭한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유적유물들이 수없이 많다.

이 책에서는 조선의 대표적인 유적유물들을 소개한다.

편집부로부터

차　　례

일화와 상식

조선력사 시대구분표

<table>
<tr><th>시대</th><th>시기</th><th colspan="2">시대 및
국가이름</th><th>기　　간</th></tr>
<tr><td rowspan="13">원
시</td><td rowspan="13"></td><td rowspan="3">구석기
시대</td><td>전기</td><td>100만년전—30만년전</td></tr>
<tr><td>중기</td><td>30만년전—5만년전</td></tr>
<tr><td>후기</td><td>5만년전—1만 5 000년전</td></tr>
<tr><td colspan="2">중석기시대</td><td>1만 5 000년전—9 000년전</td></tr>
<tr><td colspan="2" rowspan="3">신석기시대</td><td>대동강류역 B.C. 7000년기—
B.C. 4000년기 전반기</td></tr>
<tr><td>조선남부: B.C. 6000년기초—
B.C. 3000년기 전반기</td></tr>
<tr><td>조선북부, 중국동북지방,
로씨야 연해변강지방:
B.C. 6000년기초—
B.C. 4000년기말</td></tr>
<tr><td colspan="2" rowspan="3">청동기시대</td><td>대동강류역: B.C. 4000년기
후반기</td></tr>
<tr><td>조선서북부, 료동지방:
B.C. 3000년기 전반기</td></tr>
<tr><td>조선동북부, 로씨야 연해변강지방:
B.C. 3000년기 초중엽</td></tr>
<tr><td rowspan="2">고대
(노예
사회)</td><td rowspan="2"></td><td colspan="2">전조선(단군조선)</td><td>B.C. 30세기초—
B.C. 15세기 중엽</td></tr>
<tr><td colspan="2">후조선</td><td>B.C. 15세기 중엽—
B.C. 194년</td></tr>
</table>

시기		나라	연대
고대(노예사회)		부 여	B.C. 15세기 중엽—B.C. 219년
		구 려	B.C. 15세기 중엽—B.C. 277년
		진 국	B.C. 12세기경—A.D. 1세기 초엽
		만조선	B.C. 194년—B.C. 108년
중세(봉건사회)	삼국	고구려	B.C. 277년—668년
		후부여	B.C. 2세기초—494년
		백 제	B.C. 1세기 말엽—660년
		전기신라	A.D. 1세기 초중엽—676년
		가 야	A.D. 1세기 중엽—562년
		동부여	285년—494년
		북부여	4세기 중엽—5세기 중엽
	발해 및 후기신라	발 해	698년—926년
		후기신라	676년—935년
		후백제	900년—936년
		태 봉	901년—918년
		고 려	918년—1392년
		조선봉건왕조	1392년—1860년대 초엽
근대		조선봉건왕조	1860년대 중엽—1910년
			1910년—1926년
현대			1926년—현재

1. 원시 및 고대

검은모루유적

검은모루유적은 황해북도 상원군 흑우리동굴에서 발견된 100만년전의 구석기시대 전기유적이다.

유적은 1966～1968년에 돌을 캐내다가 봉우리의 남쪽 기슭으로부터 15～17m정도의 높이에 있는 곳에서 발견된 석회암천연동굴안에 있다.

이 유적은 조선의 가장 오랜 유적이다. 유적에서는 원인들이 돌로 만든 로동도구와 그것을 만들고 남은 석회암덩이들, 강자갈차돌들과 원인들이 잡아먹고 버렸거나 자연적으로 쌓인 짐승의 뼈화석들이 발견되였다.

원인들은 나무열매를 따거나 풀뿌리를 캐며 짐승을 잡아먹는것과 같은 생업활동에 원시적인 로동도구들을 사용하였다.

검은모루유적은 100만년전에 생겨난 사람들이 어떠한 자연환경속에서 어떠한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이다.

굴포문화

1963년에 라선시 굴포리 서포항에서는 굴포문화로 명명된 구석기시대문화층이 발견되였다.

두개 층으로 이루어진 구석기시대문화층의 아래층인

굴포문화 1기층은 구석기시대 중기, 웃층인 굴포문화 2기층은 구석기시대 후기에 해당된다.

1기층에서는 10여만년전에 구석기시대 중기사람인 고인들이 림시 거처지로 리용한 움막형태의 집자리와 그들이 쓰다 남긴 석기들인 찍개, 칼, 속돌, 격지 등이 발견되였다.

30～40㎡정도 되는 집자리에서는 현재 집의 골조였던 장대기를 저질러놓았던것이거나 집의 가장자리인듯 한 돌덩이와 돌무지들, 석기를 만들 때 대고 때린것으로 인정되는 큼직한 돌, 석영으로 만든 석기들, 석영쪼각들이 발견되였다.

찍개, 칼, 격지, 속돌 등은 비록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당시 사람들의 로동도구제작과정과 나무나 풀뿌리를 찍거나 베고 사냥해온 짐승의 뼈와 살, 가죽 같은것을 가공하는 등 여러가지 생업활동을 비롯하여 자연과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개조변혁하여온 목적의식적인 창조적활동과정이 반영되여있다.

2기층에서는 고인들보다 체질적으로 더 발달된 4만～3만년전의 구석기시대 후기사람인 신인들이 쓰다 남긴 석기인 대리석으로 만든 밀개와 각암으로 만든 긁개, 칼 등이 드러났다.

굴포문화 1기층 및 2기층에서 알려진 집자리와 석기들은 조선에도 명백히 구석기시대가 존재하였을뿐아니라 그것이 구석기시대 중기와 후기 즉 인류력사발전의 합법칙적단계를 거쳐 점차 발전하여왔다는것을 고고학적인 실물자료로써 뚜렷이 확증해준 문화유산이다.

대현동유적

대현동유적은 평양시 력포구역 대현동의 왼쪽언덕중턱에 있는 구석기시대 중기의 석회암동굴유적이다.

1977년에 발굴되였다. 동굴의 길이는 15～16m정도이고 그안에는 1.4m정도의 두께로 쌓인 층이 있었다.

구석기시대 중기의 한개 문화층으로 이루어진 이 유적에서는 고인단계사람의 머리뼈화석쪼각들과 함께 많은 동물뼈화석들이 나왔다. 여기서 나온 인류화석을 《력포사람》이라고 부른다.

이 유적에서 나온 큰쌍코뿔소, 털코뿔소, 대현말, 동굴사자, 동굴히에나, 물소, 곰, 메돼지 등 28종의 동물뼈화석가운데서 짐승류는 22종이다.

대현동유적은 조선의 고인들의 형태학적특징과 당시의 자연환경을 밝힐수 있는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있는 문화유산이다.

승리산유적

승리산유적은 평안남도 덕천시 승리산의 길이 60m 남짓한 동굴에서 알려진 구석기시대 중기로부터 청동기시대까지의 유적이다.

1972년과 1973년 두차례에 걸쳐 발굴이 진행되였다.

동굴안에는 5～10m정도 두께의 퇴적층이 있었다.

유적은 2개의 구석기시대문화층과 1개의 청동기시대

문화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화층에서는 수많은 짐승뼈화석들과 사람뼈화석, 사람뼈들이 드러났다.

구석기시대문화층의 아래층에서는 구석기시대 중기사람인 고인의 어금이화석 2개와 어깨뼈화석 1개가 나왔는데 이 인류화석을 《덕천사람》이라고 한다.

웃층에서는 구석기시대 후기사람인 신인의 아래턱뼈화석 1개가 드러났다. 이 인류화석을 《승리산사람》이라고 한다.

인류화석들과 함께 구석기시대문화층들에서는 큰쌍코뿔소, 코끼리, 물소, 큰뿔사슴, 동굴히에나, 동굴사자 등 29종의 짐승뼈화석 900여점이 드러났다.

동굴입구가까이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문화층에서는 무덤과 집자리가 드러났는데 거기에서는 활촉, 찔개살, 칼, 구슬, 달모양도끼, 조롱박형단지, 10여명분의 사람뼈와 41마리분의 짐승뼈 172점이 드러났다.

이 동굴유적에서 고인을 비롯하여 신인의 화석과 현세의 사람뼈가 계통적으로 나온것은 구석기시대전기의 검은모루유적을 남긴 원인이 중기의 고인인 《덕천사람》으로, 다시 후기의 신인인《승리산사람》으로 발전하였으며 또 그들이 현세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살아오면서 자연을 정복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끊임없이 벌려왔음을 보여준다.

조선에서 처음으로 고인과 신인의 화석이 발견된 승리산동굴유적은 조선사람의 시원을 밝히는데서뿐아니라 인류진화발전사와 원시사회사연구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중요한 유적이다.

표대유적

표대유적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의 동쪽끝 표대마을 앞벌에 위치하고있는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고조선, 고구려의 유적이다.

1994년 봄에 발견되여 현재까지 발굴이 진행되고있는 60만㎡이상의 이 유적에서는 원시, 고대의 집자리 100여개, 고대, 고구려의 무덤, 시설물 등과 1만여점의 유물들이 드러났다.

이 유적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집자리이며 그것은 크게 2개의 문화층으로 나뉘여진다.

제1문화층인 신석기시대집자리들에는 문길이 있는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며 바닥이 2단으로 된것과 바닥에 진흙을 깐것도 있고 깔지 않은것도 있다. 이 층에서는 고뿌, 보시기로부터 독, 항아리에 이르기까지 크기와 모양이 각이한 여러가지 종류의 질그릇들이 드러났다. 질그릇에는 무늬를 새긴것도 있고 새기지 않은것도 있다. 질그릇과 함께 돌로 만든 달도끼, 창끝, 활촉 등 무기류와 도끼, 대패날, 칼, 끌, 숫돌, 괭이, 반달칼, 가락바퀴, 갈돌 등 로동도구들과 함께 구슬, 조소품 등 조형예술품들도 드러났다.

제2문화층인 대동강류역의 팽이그릇시기집자리 68개는 4개 시기로 구분된다.

1기는 청동기시대, 2～4기는 고조선 전반기에 해당되는데 이 집자리들은 1기로부터 4기로 갈수록 집자리움의 깊이가 점차 얕아지고 평면테두리는 방정해진다. 따라서 4기의

집자리들은 움의 깊이가 30㎝미만으로서 매우 얕으며 움벽은 곧다. 특히 늦은 시기의 모든 집자리들에 주추돌시설이 있는것은 살림집이 지상으로 올라오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 층에서는 팽이그릇, 불에 탄 벼와 콩, 비파형창끝, 석기 등 다양한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드러났다.

표대유적에서는 이밖에도 신석기시대 질그릇가마터 2개와 유물페기장 3개, 고대 고인돌무덤 3기, 고구려돌칸흙무덤 2기를 비롯한 수많은 유적들이 드러났다.

표대유적 제7지점에서는 조선에서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질그릇가마터가 발견되였는데 1호가마터는 연소실과 불고래, 소성실이 따로따로 지하에 나란히 설치된 평가마로서 천정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들은 당시의 모습 그대로 잘 남아있는것이며 2호가마터는 평면생김새가 긴 타원형인 외칸가마이다.

표대유적에서 발굴된 수많은 집자리들과 시설물, 무덤, 유물 등은 조선의 원시, 고대, 중세초기에 이르는 각이한 시대의 력사와 문화를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할수 있게 하는 귀중한 실물자료들이다.

남경유적

남경유적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남경부락에서 발굴된 원시 및 고대유적이다.

여기에서는 신석기시대집자리 5개와 청동기시대집자리 22개, 돌관무덤, 독무덤들이 발굴되였으며 4 000여점의 유물이 나왔다.

신석기시대집자리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31호집자리이다. 길이 13.5m, 너비 8.4m인 이 집자리는 조선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신석기시대집자리들가운데서 비교적 규모가 크며 바닥도 아래, 우 2단을 이룬 독특한 짜임새로 이루어졌다. 집자리바닥의 복판에는 불을 피우던 자리가 있다. 이 집자리에서는 갈돌 12개, 낟알저장용독 10개정도가 나왔다.

신석기시대집자리에서는 600여개의 그물추가 한곳에서 드러난것을 비롯하여 도끼, 끌, 대패날, 칼, 갈돌과 같은 석기들과 독, 단지, 바리, 잔 등 여러 종류의 질그릇이 120여개정도 나왔다. 특히 번개무늬를 정교하게 새긴 물동이모양의 질그릇이 이채로운데 장식뿐아니라 세련된 형태 등으로 하여 하나의 공예품을 방불케 하며 당시 질그릇제작기술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신석기시대집자리에서는 탄화된 조와 도토리알도 알려졌다.

주목되는것은 36호집자리에서 오곡이 알려진것이다. 벼, 콩, 조, 기장, 수수 등 다섯가지 낟알들이 집자리 한가운데 있는 직경 1m범위의 흙속에 뒤섞여 흩어져있었는데 이것은 농업이 청동기시대에 이르러 지배적인것으로 되였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벼는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남경유적에서 발굴된 벼의 평균길이는 4.5㎜, 너비는 2.5㎜, 길이와 너비의 비례는 1.8:1로서 짧은알종류에 속한다.

일본의 유적들에서 드러난 가장 이른 시기의 벼도 남경유적의것과 같은 짧은알종류이다. 이것은 조선의 선조들이 이 시기에 벌써 벼농사를 지었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벼재배방법을 전파시켰다는것을 과학적자료로써 밝혀준다.

대동강문화

대동강문화는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일대에서 창조된 조선민족의 고대문화, 단군조선의 문화를 의미하는 말이다.

대동강문화는 대동강류역일대에서 발생발전한 구석기시대문화와 신석기시대문화, 청동기시대문화에 이르는 깊은 력사적뿌리에서 형성되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B.C. 3000년기초에 단군에 의하여 고조선이 성립됨으로써 드디여 원시시대에서 벗어나 고대문명시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평양시 강동군에서 단군릉이 발굴되고 거기에서 5 000여년전의 단군의 유골이 발견된것은 지금까지 신화적, 전설적인물로 전해오던 단군이 실재한 조선민족의 원시조이며 단군조선의 건국시조이라는것을 증명해준다.

또한 대동강류역일대에서 단군조선시기의 지배계급의 무덤인 고인돌무덤이 무려 1만 수천기나 알려진것은 이곳에 지배계급들이 집중되여 살고있었다는것과 함께 평양이 단군조선의 수도였다는것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평양과 그 주변지역에서 알려진 고대성곽유적들인 청암동토성, 황대성, 평양성, 성현리토성, 지탑리토성, 덕산토성, 고대부락터유적들인 표대유적과 남경유적, 금탄리유적, 대평리유적, 남양유적, 석탄리유적들 그리고 화성동제단유적은 당시 대동강류역일대에 고대국가인 단군조선이 존재하였으며 대동강류역이 고대국가발상지, 고대

문명발상지의 하나라는것을 실증해준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단군조선 초기부터 농업생산활동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였다.

단군조선에서는 후치를 비롯한 선진적인 농업도구들을 리용하여 넓은 면적에서 갈이농사를 진행하였으며 재배작물의 품종을 늘임으로써 알곡생산량을 높이였다.

특히 일찍부터 벼와 콩을 재배하였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금속가공기술도 매우 발전하였다.

표대유적 10호집자리와 룡곡리 4호, 5호고인돌무덤, 선암리돌관무덤을 비롯한 단군조선 초기의 유적들에서 알려진 청동제품들은 당시의 청동제련 및 합금기술을 보여준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농업생산활동을 비롯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천문관측이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그것은 고대천문학발전의 토대로 되였다.

지금까지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별자리가 새겨진 고인돌무덤이 30여기나 알려졌는데 여기에 새겨진 별자리들가운데는 오늘의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는 별자리가 40여개나 된다.

대동강류역일대에서는 또한 세계최초글자의 하나인 신지글자가 널리 쓰이였다.

신지글자는 그림글자, 모양본딴글자, 부호글자 등 여러시초글자단계를 거쳐서 발생발전한 조선의 고유한 민족글자이다.

이처럼 대동강문화는 그 형성시기에 있어서나 문화발전수준에 있어서 세계최초 고대문명의 하나로 내세울수 있는 우수한 고대문화이다.

단 군 릉

단군릉은 평양시 강동군 문흥리의 대박산기슭에 웅장하게 개건된 조선민족의 건국시조 단군의 무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군이 실재한 조선민족의 원시조임을 밝힐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1993년 9월에는 현지에 나오시여 단군릉을 개건할 자리를 잡아주시였을뿐아니라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1994년 7월 6일에는 단군릉최종형성안을 보아주시고 친필을 남기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단군릉복구위원회를 무어주시고 단군릉을 최상의 수준에서 하루빨리 개건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개건된 단군릉의 총부지면적은 45정보이며 여기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과 석인상구역, 중심구역이 있다.

단군릉개건기념비구역에는 단군릉개건기념비와 단군릉기적비 및 릉의 문기둥이 있다.

단군릉개건기념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령도업적을 칭송하는 헌시가 새겨져있다.

단군릉기적비에는 단군의 업적을 전하는 글과 1936년 단군릉수축기성회 성원들의 이름, 당시 단군릉수축에 필요한 자금을 희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문기둥은 릉앞 좌우에 각각 5개씩 가로 줄지어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단군조선시기의 유적인 선돌을 형상한것이다.

다음으로 석인상구역은 단군의 네 아들과 측근신하들을

형상한 조각상들이 배치되여있는 구역으로서 돌계단좌우에 전개되여있다.

석인상들의 높이는 5m이고 무게는 25t이다.

중심구역은 남북길이 101.7m, 동서너비 97.5m되는 넓은 구역으로서 그안에 한단 높인 길이 84m, 너비 80m되는 밑단이 있다.

이 밑단우에는 무덤무지를 중심으로 돌상과 돌향로, 돌범조각상과 망주석이 배치되여있다. 그리고 밑단밖의 구역에는 돌등과 검탑이 서있다.

밑단의 중심에 있는 무덤무지는 우가 잘린 정4각추형으로서 단군릉이 개건된 1994년을 상징하여 1 994개의 화강석을 다듬어 밑단으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차례로 줄임하여 9개의 단을 지어 높이 쌓아올린 피라미드식의 돌무덤이다.

무덤무지의 밑단 한변의 길이는 50m이고 무덤무지높이는 22m이다.

무덤무지의 북쪽에 낸 문으로 들어가면 바른4각형의 평면구조로 된 무덤칸이 있다.

무덤칸바닥에는 2개의 관대가 남북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고 그우에는 단군과 그 안해의 유골이 든 유리관을 덧싼 나무관이 각각 놓여있다. 무덤칸정면에는 단군의 화상이 걸려있다.

이와 같이 개건된 단군릉은 조선민족의 원시조 단군의 유골이 안치되여있고 단군조선시기의 발전된 문화와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보여주는 력사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는 문화적재보이다.

룡산리순장무덤

룡산리순장무덤은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의 비류강가에 있는 고조선초기의 무덤이다.

순장무덤이란 고대사회에서 노예주가 죽었을 때 그가 소유하고있던 노예들을 강제로 묻은 무덤을 말한다.

룡산리순장무덤은 노예주의 주검칸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10개의 노예주검칸을 배치하였으며 모두 11개의 주검칸으로 이루어진 무덤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판돌로 덮은 고인돌무덤형식으로 되여있다.

제일 중심에 있는 주검칸은 비교적 크고 바닥은 주위의 다른 주검칸바닥보다 한단 높고 잘 다듬은 통판돌 한장을 깔았는데 거기에서는 2명분의 사람뼈와 청동쪼각이 드러났다.

주위에 있는 주검칸들은 대체로 중심의 주검칸보다 훨씬 작고 바닥에는 쪼각돌들이 한벌 깔려있었는데 거기에는 각각 3～4명분(모두 30명분정도)의 사람뼈가 무질서하게 널려있었고 돌거울쪼각, 돌도끼, 팽이그릇쪼각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중심주검칸에는 값진 청동유물을 비롯한 많은 재부를 차지하고있던 노예주가 묻혔으며 그 주위의 주검칸에는 노예들이 묻혔다는것을 알수 있다.

룡산리순장무덤은 지금으로부터 5 000여년전인 B.C. 3000년기초의 유적으로서 고조선국가성립을 전후한 시기의 사회계급관계를 깊이 인식할수 있게 하는 문화유산이다.

강상무덤

강상무덤은 중국 료녕성 대련시 감정자구 후목성역의 서북쪽 강상둔덕에 있는 B.C. 2000년기 중엽경 고조선의 돌무지형식 노예순장무덤이다.

동서 약 100m되는 둔덕의 가운데에 무덤구뎅이를 파고 돌무지를 쌓아 만들었다. 동서 약 28m, 남북 약 20m되는 장방형의 무덤구역안에 23개의 무덤구뎅이들이 있다. 무덤구역은 돌담이나 돌줄에 의하여 3개의 구획으로 나뉘여진다. 그가운데서 동쪽구획은 무덤구역전체의 4분의 3이상의 면적을 차지하고있어 가장 크고 나머지 2개의 구획은 그보다 매우 작다. 이 3개의 구획은 막돌로 쌓은 돌줄에 의하여 다시 여러개의 크고작은 구획으로 나뉘여진다.

동쪽구획에는 7호무덤구뎅이를 중심으로 16개의 무덤구뎅이가 배치되여있고 서쪽구획에는 4개의 무덤구뎅이가 배치되여있으며 맨 서쪽구획에 무덤구뎅이 1개가 배치되여있다.

강상무덤은 돌관무덤이나 돌곽무덤과 같은 여러가지 형식의 무덤들이 한개의 돌무지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짜임새를 가진 무덤이다. 무덤에서는 청동단검, 질그릇을 비롯하여 20여종에 874점이나 되는 유물이 나왔으며 대다수 무덤구뎅이의 사람뼈들은 화장한것이다.

강상무덤의 중심인 7호무덤구뎅이에 묻힌자는 대노예소유자였다.

7호구뎅이에는 관에 넣어서 같은 방향으로 정히 묻었던

3명분의 사람뼈와 462개의 껴묻거리가 들어있었다. 구뎅이밖으로는 2m정도의 사이를 두고 돌줄 2줄이 둘러졌으며 사방으로 돌줄들이 뻗어나갔다. 돌줄이 둘러진 바깥쪽에 놓인 무덤구뎅이들에서는 가병들이 쓰던것으로 인정되는 비파형단검과 청동창끝, 청동활촉 등 청동무기류가 나오기도 하였다.

무덤구뎅이들에서는 2～18명분의 사람뼈들이 나왔는데 이러한 무덤구뎅이들에서는 껴묻거리도 별로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들은 무덤의 중심에 노예주가 묻히고 그것을 둘러싼 무덤구뎅이들에는 노예주의 사망과 더불어 순장된 노예들과 일부 가병들이 묻힌것이라고 인정된다.

강상무덤과 같은 대노예순장무덤은 고조선이 강력한 고대국가, 노예소유자국가였다는것을 보여준다.

고인돌무덤뚜껑돌의 별자리

고조선시기의 대표적인 무덤의 하나인 고인돌무덤가운데에는 뚜껑돌에 별자리가 새겨져있는것이 수백개나 된다.

별자리는 대체로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술잔이나 고뿌모양의 오목한 홈구멍들로 새겨져있다.

이러한 홈구멍들의 묶음을 별자리로 보게 되는것은 홈구멍들의 모양새가 밤하늘에 보이는 별이나 별무리들과 매우 비슷하기때문이다.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새겨져있는 홈구멍들의 크기는 3～6가지로 갈라볼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무덤벽화의 별그림에 표시된 별의 등급차이와도 비슷하고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 기초하여 조선봉건왕조초기에 제작된 천문도인 《천상렬차분야지도》에 표시된 별밝기등급과도 비슷하다.

바로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각이한 크기로 새겨져있는 홈구멍들은 당대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맨눈으로 보고 새겨놓은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별을 표시한 홈구멍들은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 적은것은 3～5개, 많은것은 100개이상 새겨져있는데 그것들은 일정한 별자리를 형성하고있다.

고인돌무덤의 뚜껑돌우에는 홈구멍들을 얕고 좁은 홈선으로 서로 련결하여 새겨놓은것도 있는데 그 모양은 직선, 곡선, 3각형, 4각형, 다각형 등 기하학적도형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물건을 상징한것도 있다.

이렇게 홈구멍들이 홈선으로 련결된 모양은 《천상렬차분야지도》의 별자리모양과 류사한것이다.

밤하늘의 무수한 천체들을 새겨놓은 고인돌무덤뚜껑돌의 별자리는 하나의 석각천문도라고 할수 있다.

고인돌무덤뚜껑돌에 새겨져있는 별자리들의 년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4 800년전～3 200년전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단군조선 초기부터 고인돌무덤뚜껑돌에 별자리가 새겨지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뚜껑돌에 별자리가 새겨져있는 단군조선시기의 고인돌무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동강류역에서만도 200여기나 확인되였으며 여기에는 40여개의 별자리가 새겨져있다.

고인돌무덤과 같은 력사문화유적에 별자리를 많이 새겨 놓은것은 세계적으로도 조선밖에 없다.

고인돌무덤뚜껑돌의 별자리는 모양새가 비교적 정확하고 별자리의 이동척도차이가 크지 않은것으로서 단군조선시기 사람들의 높은 천문지식수준을 잘 보여준다.

고인돌무덤의 류형

오덕형고인돌무덤은 황해북도 연탄군 오덕리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여 그 지방의 이름을 붙인것인데 이 무덤은 땅우에 큰 판돌 두개로 고임돌을 마주세우고 그사이의 량끝을 작은 판돌로 막아 무덤칸을 만든 우에 한장의 큰 돌로 뚜껑을 덮은 무덤이다.

침촌형고인돌무덤은 황해북도 황주군 침촌리일대에서 발굴되였는데 무덤칸은 얇은 판돌을 돌관처럼 만들고 주변에 자갈과 흙 또는 막돌로 보강하여 무덤칸에 눌리우는 큰 뚜껑돌의 중압을 지탱할수 있게 만든 고인돌무덤이다.

묵방형고인돌무덤은 평안남도 개천시 묵방리일대에서 처음으로 발굴되였는데 무덤칸을 막돌이나 작은 판돌로 차곡차곡 쌓아 만든 우에 큰돌로 뚜껑을 덮은 고인돌무덤이다.

비파형단검

조선 고대 전기(B.C. 3000년기초~B.C. 2000년기말)에 사용된 대표적인 청동무기이다.

비파형단검은 우선 검몸의 평면생김새가 독특하다.

이 단검의 검몸앞끝은 뾰족하고 점차 퍼져내려오던 날선은 앞부분 또는 중간부분에서 비교적 예리한 돌기를 이루었으며 그 아래부분에는 부드러운 곡선으로 형성된 우묵이와 불룩이가 있다.

검몸의 세로중심에는 뿌리에로 이어진 등대가 있기때문에 량쪽날과 등대사이에는 자연피홈이 형성되여있다. 지금까지 중국, 인디아, 이란, 파키스탄 등 고대문화가 발전되였다는 나라와 지역들의 청동단검은 모두 검몸이 직선으로 되여있고 피홈 같은것은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비파형단검과는 검몸의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다.

비파형단검은 다음으로 그 구조도 독특하다.

비파형단검은 조립식단검으로서 검몸과 검자루를 분리할수 있을뿐아니라 검자루도 손잡이부분과 보호턱, 검자루맞추개가 서로 분리할수 있게 되여있어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비파형단검은 또한 재질이 우수하다.

비파형단검은 고조선과 부여, 구려, 진국을 비롯한 고대 조선의 모든 령역에서 다 알려졌으며 고인돌무덤과 돌관무덤을 비롯한 고대 전기에 해당한 여러 형식의 무덤들에서 드러나고있다. 비파형단검은 조선 고대 전기 청동기문화의 대표적유물의 하나이다.

좁은놋단검

조선 고대 후기(B.C. 2000년기말~B.C. 1000년기 후반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청동무기이다.

비파형단검이 조선의 고대 전기문화를 대표한다면 좁은놋단검은 그 후기문화를 대표하는 특징적인 유물의 하나이다.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을 계승한 무기이다. 그것은 먼저 검몸의 형태와 짜임새에서 알수 있다. 량쪽날선에 돌기부가 있는것, 검몸의 견고성을 보장하면서 굵게 내려온 등대, 등대우에 나있는 등날 등 모든 요소들이 비파형단검의 검몸에서 나타나는것들이다.

좁은놋단검은 단검의 구조에서도 비파형단검을 계승하였다. 좁은놋단검 역시 검몸과 검자루로 이루어져있는데 따로 분리할수 있게 되여있고 검자루도 손잡이와 보호턱, 검자루맞추개 등이 조립식으로 되여있는것은 비파형단검의 구조를 계승한것이다. 좁은놋단검은 기본적으로 비파형단검을 계승한것이지만 그보다 더 발전된 무기이다. 좁은놋단검의 검몸 량옆에 돌기부가 각각 2개씩 나있고 그사이에 에임이 있는데 이것은 돌기부가 량옆에 하나씩 있고 그아래 우묵이와 불룩이가 있던 비파형단검의 검몸형태를 보다 세련시킨것이며 또 비파형단검에 비하여 그 재질이 견고하고 백색도가 더 강하다. 좁은놋단검은 비파형단검과 함께 선조들의 높은 청동기생산기술과 조형예술적감각, 진취적이면서도 용감한 성격적특질, 고상한 정서적감정 등을 잘 구현하고있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2. 중 세

1) 옛 건물 및 터

대 동 문

대동문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에 있는 평양성의 동쪽문이다.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문으로 평양성과 함께 6세기 중엽에 세워진 후 여러차례 보수개건되였다. 현재의 건물은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1592—1598년)때 불탄것을 1635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이 문은 대동강을 건너 남쪽으로 통하는 문으로서 평양성의 성문들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성문이였다.

대동문은 화강석을 다듬어 쌓은 정교한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다. 문의 높이는 19m이다.

축대의 높이는 6.5m이며 그가운데에는 무지개모양의 나드는 문을 냈다. 축대는 평면상 네 모서리를 바깥쪽으로 점차 넓혀서 힘을 잘 받을수 있게 하였다.

축대우에 세운 2층문루는 앞면 3간, 옆면 3간이다. 1층 가운데간에만 1.5m 높이에 널마루를 깔았다.

기둥은 모두 흘림기둥형식인데 네 모서리의 기둥은 다른것에 비하여 좀 굵고 높게 하면서도 안으로 약간 기울게 세워져있다. 이것은 건물의 균형을 바로잡는데서 효과적인 수법이다.

대동문의 합각지붕은 마루선들과 지붕면이 그 어디서 보나 한결같이 부드럽고 우아한 곡선을 이루고있어 매우 아름답다.

처마우에는 높은 조각술로 형상한 원숭이, 개, 인형 등의 잡상들이 있었으나 해방전 일제가 원숭이조각잡상을 략탈해갔으므로 오늘도 그 자리는 비여있다.

대동문의 안정감있는 겉모양, 장쾌한 지붕의 부드러운 물매와 깊숙한 처마, 두리기둥과 두공을 비롯한 견실한 구조적 요소들, 류선형으로 다듬은 도리의 유순한 곡선, 화려한 단청 등은 조선의 건축술과 민족건축형식들을 보여주는것이다.

단 청

목조건축물에 여러가지 도안으로 색칠을 하는 장식이다. 단청은 목조건축계통으로 발전하여온 조선의 건축에서 일찍부터 발전해온 건축장식미술의 한 종류이다. 단청장식은 나무로 지은 건축물이 습기와 곤충에 의해 썩거나 좀먹는것을 막기 위하여 광물성칠감을 바른데서 시작되여 점차 장식적의의가 커지면서 목조건물의 장식적효과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발전하였다.

단청은 그 형식이 다종다양하지만 구성과 특성에 따라 범단청(초단청), 모루단청(중단청), 금단청으로 나눈다.

범단청은 단청장식이 가장 소박한것으로서 무늬와 색조가 간단하고 단조롭다. 모루단청은 범단청과 같이 단조롭지도 않고 금단청과 같이 지나치게 화려하지도 않다.

금단청은 장식구성과 무늬조직이 가장 복잡하고 정교하며 색채도 매우 화려한 특성을 가지고있다.

조선에서 단청장식의 력사는 매우 오래다. 이미 삼국시기에 일정한 장식구성체계를 가지고 색조화에서 색채학적 원리가 도입된 발전된 수준에 있었다.

문루의 1층과 2층에는 《대동문》이라고 쓴 현판과 《읍호루》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읍호루》란 문루에서 손을 드리워 대동강의 맑은 물을 떠올릴수 있는 다락이라는 뜻이다.

대동문은 평양성방어에서 언제나 중요한 역할을 놀았다. 임진조국전쟁때 조선의 군사들은 대동문을 드나들면서 배를 타고 강을 건너 동평양쪽에 도사리고있던 왜적들을 불의에 기습하여 족치군 하였다.

대동문은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1950—1953년)때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혹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1954년과 1959년 두차례에 걸쳐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오늘 대동문은 평양의 오랜 력사를 자랑하면서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리용되고있다.

고려성균관

고려성균관은 개성시 방직동에 있는 고려 전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은 유교교육기관이다.

이 건물은 992년에 처음으로 건설되였다. 다른 나라 사신을 류숙시킬 때는 순천관이라고도 불렀다. 그후 유교경전에 관한 사무를 전문으로 보는 숭문관으로도 리용되였다. 1089년에 성균관의 전신인 국자감을 이곳으로 옮겨오고 대성전 같은것이 증설되였으며 1298년에 성균감으로, 1308년부터 그 이름을 성균관으로 고쳐부르게 되였다. 조선봉건왕조가 선 다음 최고교육기관으로 한성(서울)에 성균관이 서면서 고려성균관은 지방의 유교교육기관인 향교격으로 낮아졌으나 개성지방 유지들의 불만과 반항을 무마하기

위하여 그 이름을 그대로 성균관이라고 불렀다.

지금의 건물은 임진조국전쟁때 왜적들이 불태워버렸던 것을 1602—1610년에 옛 모습대로 복구한것이다.

고려성균관은 대성전(문묘안에서 공자의 위패를 두는 집채)과 명륜당(유학을 가르치던 사당)을 비롯한 20여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건물들은 송악산 동쪽기슭의 조금 비탈진 곳에 남북중심축을 따라 대성전을 중심으로 한 북쪽구역과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남쪽구역으로 나뉘여 배치되였다.

고려성균관은 고려시기 국가적인 교육기관의 면모를 그대로 간직하고 당시의 교육제도와 건축술의 일단을 잘 보여주고있는 건물로서 오늘 훌륭히 꾸려졌다.

고려성균관의 천연기념물들

고려성균관마당에는 성균관과 함께 력사적으로 보존되여오는 천년자란 느티나무와 두그루의 은행나무가 있다.

느티나무는 나무모양이 아름다와 자연풍치를 돋구어준다.

높이 25m, 밑둥둘레 7.1m, 가슴높이둘레 5.25m, 밑둥직경 2.2m, 가슴높이직경 1.5m이다. 나무는 약 6.5m의 높이에서 두줄기로 갈라졌다. 그우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가지들을 쳐서 직경 17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동쪽에 있는 은행나무는 높이 30m, 밑둥둘레 6m, 가슴높이둘레 5.25m이다. 나무는 약 2.8m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로 갈라졌으며 우로 올라가면서 수많은 가지들을 쳐서 직경 약 20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서쪽의 은행나무는 높이 31m, 밑둥둘레 6.45m, 가슴높이둘레 5.25m, 밑둥직경 2.6m, 가슴높이직경 1.7m이다. 약 4m의 높이에서 2개의 원줄기가 갈라졌으며 직경 약 27m의 나무갓을 이루고있다.

동 명 관

동명관은 평안남도 성천군 성천읍에 있던 고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은 객사였다.

1343년에 처음 세워졌고 1613년에 불탄것을 1616년에 다시 지었으며 1766년에 두번째 화재로 없어진것을 1768년에 고쳐지었었다.

객사란 관리들이 지방을 순찰하거나 다른 나라 사신들이 왔을 때 묵거나 연회장으로 쓰던 건물을 말한다. 동명관은 조선봉건왕조시기 객사가운데서 규모가 크고 건축술이 우수한것으로 이름높았다.

동명관은 건물배치에서 특색이 있었다. 첫 대문과 중간대문에 들어서면 본채인 동명관을 중심으로 10여채의 큰 건물들이 네면에 처마를 잇대고 서있었는데 중심건물의 이름을 따서 동명관으로 불리왔다.

동명관은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였으며 여기서는 의식을 지냈다.

동명관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1년 12월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다 불타없어지고 돌기둥들과 주추돌들만 남아있다.

동명관에서 동쪽으로 약 700m 떨어진 성천읍의 중심에는 동명관의 바깥문인 방선문이 서있어 지난날의 객사모습을 더듬어볼수 있게 한다.

방선문에 있는 12개의 변형련꽃무늬와 귀면무늬, 화반, 동자기둥의 조각은 우수한것으로서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서울 남대문

조선봉건왕조시기 수도 한성(서울)의 남문이다. 본래 이름은 숭례문이지만 남쪽의 큰 문이기때문에 남대문이라고 부른다. 1396～1398년에 건설되였고 1448년에 개축되였으며 1479년에 보수되였다. 조선봉건왕조 초기 성문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장 크고 오랜 건물중의 하나였으나 2008년에 화재를 입었다.

남대문은 축대와 그우에 세운 문루로 이루어졌었다.

남대문에 걸려있던 《숭례문》이라고 내려쓴 현판의 글씨는 세종왕(1419—1450년)의 맏형인 양녕대군(1394—1462년)이 쓴것이였다고 한다. 21세기에 이르러 남대문이 화재를 입은것은 미제가 강점한 남조선에서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그릇된 정책이 빚어낸 비극적인 참사이다.

을 밀 대

을밀대는 평양시 중구역 경상동의 풍치수려한 모란봉에 있는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장대이다. 지금의 을밀대건물은 1714년에 고쳐지은것으로서 평양8경의 하나로 알려졌다.

을밀대는 축대와 그우에 지은 루정으로 이루어져있다.

화강암을 4각추모양으로 가공하여 쌓은 을밀대의 축대는 현재 높이가 11m로서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돌가공기술과 축성술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있다.

축대의 밑부분은 고구려의 전통적인 축성수법을 살려 계단모양으로 웃돌이 아래돌보다 안쪽으로 조금씩 들어가게 쌓았는데 아래돌의 웃면에 웃돌을 물릴수 있는 턱을 만들어 중압에 잘 견디여내게 하였고 우로 올라가면서 돌들을 맞물려 쌓음으로써 안정감을 자아내고있다.

사방의 경치를 다 시원하게 바라볼수 있다고 하여 《사허정》이라고도 불리운 루정의 기둥은 밑부분에 짧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긴 나무기둥을 올려세워 비바람에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였다.

루정은 모루단청을 하여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련 광 정

련광정은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의 대동강기슭 덕바위우에 높이 서있는 조선의 루정건축의 대표작의 하나이다.

6세기 중엽 고구려 평양성을 쌓을 때 처음 세우고 여러번 고쳐지었으며 지금 건물은 1670년에 다시 지은것이다.

루정에 올라 앞을 바라보면 푸른 물이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이 한눈에 안겨오며 북쪽으로는 아름다운 모란봉과 깎아지른듯 한 청류벽, 비단천을 펼쳐놓은것 같은 릉라도등이 한폭의 그림처럼 펼쳐져있다.

련광정에는 경치가 하도 좋아 《천하제일강산》이란 현판까지 걸려있다.

지난날 평양에 기여든 외래침략자들은 련광정에 올라 《천하제일강산》이라는 현판을 보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린다고 하여 《천하》라는 두 글자를 잘라버리는 만행을 감행

하였다. 그후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련광정의 현판에 《천하》라는 두 글자를 다시 새겨넣도록 하시여 천하제일강산인 평양의 아름다움을 길이 전할수 있게 하시였다.

대동강으로 향한 남쪽채 기둥에는 고려의 시인 김황원(1045—1117년)이 부벽루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에 취하여 《긴 성벽의 한쪽 면에는 강물이 출렁출렁/넓은 벌 동쪽머리엔 산들이 드문드문》이라고 짓고는 글귀가 더 생각나지 않아 붓대를 꺾고말았다는 일화가 전해지는 시구절을 한줄씩 내려적은 나무판들이 걸려있다.

오늘 련광정이 서있는 자리는 고구려 평양성 내성의 동쪽장대터이다.

고려시기 평양성을 보수하여 서경으로 만들면서 이 자리에 다시 루정을 세우고《산수정》이라고 하였다. 그후 대동강물결에 해살이 아른거리는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여 《련광정》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련광정은 평면구조가 독특하며 남쪽채(앞면 3간, 옆면 3간)와 북쪽채(앞면 2간, 옆면 4간)로 되여있다.

련광정은 조선의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이 루정에는 임진조국전쟁때 애국명장 김응서(1564—1624년)와 애국녀성 계월향(?—1592년)이 기묘한 계책으로 왜적우두머리의 목을 베였다는 이야기가 깃들어있으며 루정앞에는 계월향의 애국적소행을 찬양하여 세운 비가 있다.

련광정은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심한 피해를 입었으나 오늘 옛 모습 그대로 훌륭히 복구되여 근로자들의 즐거운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촉 석 루

촉석루는 경상남도 진주시 남문부근에 있는 고려이전에 처음 세우고 1618년에 다시 세운 루정이다.

북쪽에 산을 등지고 진주 남강 북쪽기슭의 벼랑바위우에 서있다.

촉석루는 앞면 5간, 옆면 4간의 다락건물이다.

이 루정은 바위돌들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강가에 서있는 루정이라고 하여 촉석루라고 하였다.

촉석루는 조선의 루정건물가운데서 그 규모가 크고 째인것으로 하여 이름이 높다.

처마를 길게 뽑아 네 귀의 추녀를 버쩍 쳐든 합각지붕의 루정모습은 남강물결우에 거꾸로 비끼여 바위그림자들과 어울리면서 참으로 아름다운 정서를 안겨준다.

촉석루앞면에는 돌성벽이 나지막하게 가로놓여있고 루정에서 강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는 자그마한 문이 있다. 이곳을 지나 강기슭에 이르면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침략자들을 반대하여 싸운 애국녀성 론개(？—1593년)를 기념하여 세운 사당이 있다.

일본침략자들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을 품은 론개는 1593년 여름 어느날 촉석루에서 왜적우두머리들을 꼬여 술에 잔뜩 취하게 한 다음 그중 두놈을 끌어안고 루정앞 벼랑에서 떨어져 자기도 함께 희생되였던것이다.

촉석루는 조선 중세기 특히 17세기 루정건축기술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백 상 루

백상루는 평안남도 안주시 안주읍성의 북쪽벽 가운데부분의 등방산둔덕우에 있는 고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세웠던 루정이다.

백상루라는 이름자체가 백가지 좋은것을 다 볼수 있는 루정이라는 뜻이다.

백상루터발굴때 고려자기가 드러난 사실과 백상루라는 명칭이 14세기 전반기 고려 충숙왕(1314—1330년)이 지은 시에 나오는것으로 보아 고려시기에 처음 지은 루정으로 인정된다.

그후 1753년 다시 지은 백상루는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에 의하여 파괴되였다가 1977년 4월 다시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백상루는 잘 다듬은 돌로 정연하게 쌓은 밑단우에 세워졌다.

백상루의 기둥배치에서는 조선의 선조들이 루정건축에서 흔히 써내려온 전통적인 수법에 따라 네면 가운데간들을 넓게 하여 중심을 강조하였다.

지붕은 합각식이다. 지붕에서 특징적인것은 건물의 몸체는 하나이면서도 네면에 박공을 댔기때문에 마치 여러 건물을 잇대여 지은듯 한 느낌을 주는것이다.

백상루에는 건물과 주위환경에 어울리게 모루단청을 입혔다. 무늬와 무늬사이에는 소나무, 참대, 룡 등 단청그림을 다양하게 그려놓았다.

건축구조와 부재에 어울리게 그려놓은 아름다운 단청은

백상루의 건축장식적효과를 훌륭히 돋구고있다.

오늘 옛 모습대로 훌륭히 복구된 백상루는 근로자들이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문화휴식터로 되고있다.

경 회 루

경회루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경복궁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 왕궁의 연회장으로 쓰던 2층루정건물이다.

1408년에 처음 짓고 그후 3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임진조국전쟁때인 1593년 4월 불에 타버린것을 1867년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함께 옛 모습대로 복구하여 지금까지 전해지고있다.

경회루는 왕과 왕비가 살던 강녕전과 교태전의 서쪽 네모난 련못안에 자리잡고있으며 동쪽으로 난 3개의 돌다리로 드나들게 되여있다.

앞면 7간, 옆면 5간으로서 조선의 루정가운데서 제일 큰 2층합각건물이다.

경회루는 하나의 지붕으로 넓은 공간을 덮게 하여 그 규모가 매우 크지만 경쾌하게 들린 추녀, 아름답게 휘여오른 처마선, 지붕면 등의 세련된 처리로 하여 못을 비롯한 주변경개와 잘 어울린다.

련꽃이 만발한 련못속에 비친 루정의 흰 돌기둥과 붉은 란간 그리고 합각지붕의 그림자는 한폭의 그림과 같이 아름답다.

경회루는 이런 모습으로 하여 조선의 루정건축유산가운데서도 가장 우수한것중의 하나로 되고있다.

인 풍 루

인풍루는 자강도 강계시 충성동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루정이다. 강계 남산(462m)으로부터 뻗어내린 산줄기가 장자강과 북천강의 합수목에 떨어져서 생긴 높은 벼랑우에 있다. 1472년에 처음 세우고 1680년에 불탄것을 그해에 다시 복구하였다.

인풍루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풍루는 원래 강계읍성의 서북쪽에 세운 장대로서 그앞으로 통하는 큰길은 조선봉건왕조시기 압록강류역에서 명문고개를 넘어 안주, 평양으로 가는 주요도로였으므로 외적들과의 투쟁에서 전초기지로 되였던 강계읍성의 장대가운데서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인풍루에는 모루단청을 입히고 기둥을 붉게 칠하였기때문에 록음짙은 여름철은 물론 가을철에도 단풍색과 잘 어울려 건물이 웅건하면서도 아담하게 보인다.

인풍루에는 건물을 자연풍경과 잘 조화되게 짓고 부재를 하나 쓰거나 단청을 하나 입혀도 건물의 특성에 맞게 한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지혜와 예술적기교가 담겨져있다.

정 릉 사

정릉사는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운 5세기 고구려의 절간이다.

427년 고구려가 수도를 압록강대안의 국내성(중국 길림성

집안)으로부터 평양에 옮겨오면서 동명왕릉을 이곳으로 옮겨다 건설할 때 함께 지은것이다.

1974년과 1976년 동명왕릉일대의 고구려유적을 전면적으로 발굴할 때에 발견되여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였다.

발굴때에 나온 질그릇쪼각들에 《고구려(高句麗)》, 《정릉(定陵)》, 《릉사(陵寺)》라는 글자가 있었으므로 절의 명칭이 알려졌다.

정릉사터의 규모는 동서 223m, 남북 132.8m로서 그 총면적은 2만 9 614.4㎡이다.

절터의 내부는 5개 구역으로 나뉘여진다.

여기에서는 일련의 건물터들이 드러났으며 련못과 우물도 발굴되였다. 우물에서는 생산도구의 쪼각들, 무장장비쪼각들, 도기쪼각 그리고 여러 종류의 짐승뼈들이 나왔다.

그밖에 여러가지 유물들이 나왔다.

1993년에 정릉사는 고구려의 특유한 1탑3금당식절간으로 훌륭하게 복구되였다.

8각7층탑을 중심에 두고 북쪽에는 보광전, 동쪽에는 룡화전, 서쪽에는 극락전이 놓여있으며 탑의 남쪽에는 절간으로 들어가는 중문이 있다.

정릉사옆에는 동명왕릉과 정릉사터에서 드러난 유물들과 고구려력사를 개괄하여 전시한 유물전시관이 꾸려져있다.

정릉사는 동명왕릉과 함께 고구려의 높은 건축술과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으로서 훌륭히 복구되여 민족문화의 높은 발전모습을 과시하고있다.

신 계 사

신계사는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519년에 처음 세우고 그후 여러차례 다시 짓고 보수한 절간이다.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을 보여주는 절간으로서 장안사, 표훈사, 유점사와 함께 금강산의 4대절간의 하나로 일러왔다.

조선봉건왕조말기 신계사에는 대웅전구역과 만세루구역에 15채의 건물이 있었다.

1951년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에 의하여 신계사의 6채의 전당과 4채의 루정을 비롯한 10여채의 건물, 그안에 있던 귀중한 유물들이 모조리 불타고말았다. 그리하여 오래동안 신계사에는 건물터와 3층탑만이 남아있었다.

신계사의 기본건물들은 오늘날에 와서 자기의 옛 모습대로 복구되게 되였다.

보 덕 암

보덕암은 강원도 금강군 내금강리 만폭동골안의 깎아지른듯 한 절벽에 있는 표훈사에 속한 암자(작은 절)이다.

보덕암은 삼국시기 고구려의 중 보덕이 처음 세운것으로 전하는데 지금의 건물은 1675년에 고쳐짓고 1808년에 보수한것이다.

보덕암은 원래 본채와 판도방의 두채의 건물로 이루어져있었다.

본채는 절벽중턱에 높이 7.3m의 기둥 하나를 받치고 지은 단칸집이다.

이 기둥은 나무기둥에 19마디의 동판을 감아만든것인데 1511년에 설치하여 오늘에 이르고있다.

건물안의 뒤면 절벽바위에는 자연굴인 보덕굴이 있다.

건물은 벼랑중턱에 날아갈듯이 매달아지은 기발한 착상과 하나의 구리기둥으로 암자를 떠받들게 한 건축기교, 여러가지 형식의 지붕을 적절히 배합한 건축구성으로 하여 당시 건축가들의 뛰여난 솜씨를 잘 보여준다.

불국사

불국사는 경상북도 경주시 토함산중턱에 있는 절이다.

8세기이전에 처음 세우고 8세기 중엽에 재건하였으며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었다.

원래이름은 화엄불국사 또는 화엄법류사였다. 임진조국전쟁때 왜적들이 불태워버린것을 1765년에 옛 주추돌에 맞추어 다시 지었다.

불국사의 건물배치는 크게 대웅전을 중심으로 한 기본구역인 동쪽구역과 극락전을 중심으로 한 서쪽구역으로 나뉘여진다.

불국사에서 8세기 중엽의 건축술과 높은 돌다루기솜씨를 잘 보여주는것은 돌구조물들이다.

불국사앞쪽에 쌓은 돌축담은 지형조건에 맞게 동쪽구역은 두단으로 높게 쌓고 서쪽구역은 한단으로 좀 낮게 쌓았다. 돌축담은 곧게 올려쌓지 않고 마치 기둥과 두공으로

지붕을 받치듯 구색에 맞추어 짜올렸다.

불국사의 다보탑과 석가탑, 돌등은 조형예술적으로 매우 세련되였다.

불국사의 돌구조물들은 굳은 화강석을 마음대로 가공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여러가지 조각품들과 구조물들을 만들어낸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을 보여준다.

부 석 사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주시 봉황산중턱에 있는 7세기 후반기에 처음 세우고 고려전반기에 다시 지은 절이다. 지금 조선에 남은 목조건물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에 속한다.

부석사는 676년에 처음 세웠으나 지금 있는 무량수전은 13세기경에, 조사당은 고려말인 1377년에 다시 세운것이다.

지금 이 절에는 중심건물인 무량수전과 조사당, 당간지주와 3층돌탑, 돌등이 남아있다.

무량수전은 앞면 5간, 옆면 3간의 합각집이며 오르내리는 3개의 계단이 있다.

무량수전의 동쪽에 조사당이 있는데 건물의 규모에 맞게 그 짜임새도 훨씬 간소하다.

기발을 꽂는 대인 당간지주는 높이 4.28m의 두 지주(고임기둥)가 1m 간격으로 동서로 마주서있으며 그사이에는 원형으로 된 대돌이 있다.

무량수전의 동쪽언덕우에는 화강암으로 만든 높이 약 5.1m되는 3층돌탑이 있고 무량수전앞에는 8각형불집돌에 4개의 보살상이 새겨진 약 3.13m의 돌등이 서있다.

부석사는 고려시기의 목조건물을 조형예술적으로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유적의 하나이다.

량 천 사

량천사는 함경남도 고원군 락천리 산기슭의 아늑한 곳에 있는 절간이다. 753년에 처음 세워졌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 세워졌다.

지금의 대웅전은 1636년에, 만세루는 1729년에 세워진 건물들이다.

현재 량천사에는 마당을 가운데 두고 뒤에는 대웅전, 앞에는 만세루, 서쪽에는 무량수전이 있다.

대웅전은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서 흘림기둥우에 포식두공을 짜올린 겹처마합각집이다.

대웅전에는 금단청을 입혔는데 크고작은 원형, 3각형, 6각형 등 각이한 도형들을 반복하여 엮은 무늬도 잘되였지만 빗반자에 그린 무악도는 훌륭한 회화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무악도의 앞면 가운데에 복숭아를 쟁반에 받쳐든 두 선인을 중심으로 20여명의 인물들이 북과 징, 피리와 퉁소, 가야금과 소라 등 민족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을 그렸는데 얼마나 필치가 힘있고 생동한지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귀에 쟁쟁히 울려오는듯 하다. 그밖에 한 남자가 폭포를 구경하는 장면, 백발로인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 산천을 구경하는 장면, 부처와 룡, 봉황새와 보상화, 련꽃, 학, 범 등도 실감있게 그려져있다.

만세루는 앞면 5간, 옆면 3간으로서 조선의 절간루정들

가운데서도 제일 큰 축에 속하는 2층다락집이다.

만세루에도 금단청이 돋쳐지고 룡과 범, 사자, 사슴 등 동물들과 보상화, 매화, 련꽃 등 꽃들이 가득 그려져있다.

량천사는 조선의 선조들의 높은 건축술과 함께 뛰여난 단청술, 17세기 회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석 굴 암

석굴암은 경상북도 경주시 동쪽 토함산중턱에 있는 8세기 중엽 인공석굴형식의 후기신라절간이다.

751년에 불국사를 크게 고쳐지으면서 동시에 지었다. 처음에 석불사로 불리우다가 지림사에 속하면서 석굴암으로 고쳐 불리우게 되였다.

석굴암은 자연동굴을 리용하여 만든 다른 나라의 석굴사원들과는 달리 산중턱에 터를 잡고 화강암을 다듬어 아담하게 돌칸을 꾸린 다음 그우에 흙을 덮어만든 인공적인 석굴형식의 절간이라는데 그 구조상 특색이 있다. 이것은 고구려돌칸흙무덤의 건축형식을 본딴것이다.

석굴암은 불교예술의 제약속에서도 자연과 건축, 건축과 조각, 조각 호상간의 유기적통일과 형상적처리에서 높은 경지를 보여준 후기신라의 대표적유적이다.

석굴암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의 앞칸과 짧은 사이길, 그뒤의 둥근 안칸으로 되여있다. 앞칸이 네모지고 안칸이 둥근 이러한 평면구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졌다는 당시 사람들의 관념과 관련된다.

둥근 안칸은 8각형받침대우에 앉아있는 중심부처인 석가여래상을 가운데 두고 벽면을 이루는 길이 2m이상의 15개 병풍돌에 새긴 11면관음상, 10상의 라한상, 4상의 보살상조각들과 병풍돌우에 있는 10개의 감(벽에 오목하게 만든 작은 칸)안에 놓인 측근자들의 조각이 중심부처를 향하여 배치된 형식으로 이루어져있다.

석굴암의 건축설계는 전적으로 안칸가운데 있는 석가여래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조각상들의 배치에 복종되면서 조각내용과 건축이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고있다. 석굴암의 조각들에는 자연광선의 변화에 의한 효과와 보는 시점에 따르는 효과까지도 충분히 타산되여있다.

참으로 석굴암은 건축과 조각의 통일, 기술과 예술의 통일을 보여주는 걸작이다.

개 심 사

개심사는 함경북도 명천군 보촌리 칠보산 내칠보의 명승 개심대에 자리잡은 발해에서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은 절간이다.

개심사는 826년에 처음 지었다. 개심사는 1377년에 고쳐세우고 여러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는데 현재의 대웅전은 1784년에 다시 짓고 1853년에 대보수를 거친것이다.

개심사는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심검당, 응향각 등 다섯채의 건물로 이루어졌다.

대웅전은 높은 밑단우에 세운 앞면 3간, 옆면 2간의 합각집이다. 대웅전에는 모루단청을 입히였다. 대들보들가운

데에 그려진 구름을 탄 룡, 동서 량쪽퇴보를 각각 몸뚱이로 대신하고 좌우대들보들의 중허리에서부터 서로 대가리를 내밀고 마주 쏘아보는듯 한 청룡과 황룡쪼각, 거기에 입힌 채색, 대웅전안에 설치된 불단과 그우에 있는 매여단닫집 등은 모두 당시 회화와 나무조각술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준다.

대웅전안에는 부처가 있다.

심검당은 앞면 6간, 옆면 3간의 규모가 큰 건물이다.

심검당의 지붕은 홑처마합각지붕으로서 대웅전과 함께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관음전과 산신각에는 네모지붕을, 응향각에는 우진각지붕을 씌웠다. 이렇게 절간건축에 배집지붕을 쓰지 않고 네모지붕이나 우진각지붕을 쓴것은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수 있다.

성 불 사

성불사는 황해북도 사리원시 정방산성안에 있는 898년에 처음 세우고 그후 여러차례 보수하거나 고쳐지은 절간이다.

성불사는 한때 황해북도일대의 절들을 총괄하는 본사로 되여있던 절로서 원래 여기에는 20여채의 건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응진전, 극락전, 명부전, 청풍루, 운하당, 산신각의 여섯채의 건물과 5층돌탑만 남아있다.

1327년에 고쳐지은 응진전은 앞면 7간, 옆면 3간이고 배부른기둥우에 3포식두공을 짜올린 배집지붕으로 된 듬직하면서도 아름다운 목조건물이다.

응진전은 현재 조선에 남아있는 목조건물가운데서 가장

오랜 건물중의 하나이다.

극락전은 원래 고려시기인 1374년에 고쳐세운 건물인데 현재의 건물은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파괴된것을 전후에 복구한것이다.

명부전은 앞면 3간, 옆면 3간이고 2익공겹처마배집이다.

청풍루는 앞면 5간, 옆면 2간의 2익공식두공을 한 배집으로서 가운데간을 통로로 한 대문채식다락인데 모두 주위환경에 잘 어울리게 지었다.

절간마당의 중심에 서있는 5층돌탑은 웃밑단에 오목이를 새기고 웃면에 련꽃잎을 돋혀 그 수법이 검소하면서도 세련되였다.

오늘 성불사는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으며 그 주변은 인민들의 문화휴식터로, 유원지로 꾸려졌다.

정 광 사

정광사는 함경남도 리원군 원사리의 대덕산중턱에 있는 고려시기이전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 여러차례 고쳐지은 절이다. 원래의 이름은 광덕사 혹은 운암사였고 한창 번성할 때에는 10여채의 건물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웅전과 명부전만이 남아있으며 건물터로는 무량수각터, 산신각터를 비롯한 5개의 건물터가 있고 그밖에 정광여래사리탑, 대덕산정광사중수비, 20여기의 부도(중무덤)와 부도비들이 있다.

정광사의 대웅전은 포식두공에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은 건물인데 조선의 절건물가운데서 규모가 가장 큰것들중의 하나이다. 대웅전의 기둥과 대들보, 천정은 화려한 금단청

으로 장식되여있다. 건물내부의 뒤쪽에는 불단이 있고 그 우에는 1800년대초에 만든《3세불》이라고 하는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미륵불과 협시보살들이 안치되여있고 탱화(그림으로 그려서 벽에 거는 불상)들도 걸려있다.

명부전은 앞면 3간, 옆면 2간으로 된 겹처마배집지붕의 포식건물인데 다른 절들것보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면서 무게가 있다.

건물내부의 뒤쪽중심에는 머리에 두건을 쓴 지장보살이 앉아있고 그 좌우로는 이른바 죽은자들의 생전의 선과 악을 재판한다는 《염라대왕》을 비롯한 10여명의 《왕》들이 앉아있다. 대웅전의 뒤쪽에는 1660년에 세운 정광여래사리탑(4.38m)이 있는데 이 탑을 세운 다음부터 절의 이름도 정광사로 고쳐졌다고 한다.

묘향산 보현사

보현사는 평안북도 향산군 향암리 묘향산골안에 있는 고려 전반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고쳐지은 조선의 이름난 절들중의 하나이다.

1042년에 처음 세우고 여러차례에 걸쳐 고쳐지었다.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때 미제의 야만적인 폭격에 의하여 적지 않은 건물들이 불타버렸었다.

전후 대웅전(1976년)과 만세루(1979년)를 비롯한 건물들과 탑들이 원상대로 복구되였다.

보현사는 남북중심축선상에 중심건물인 대웅전과 만세루, 탑과 문이 놓여있고 그 좌우에 수월당, 심검당,

명부전, 응향각 등 여러 건물들이 배치되여있다.

보현사로 들어가는 문은 남북중심축을 따라 3채가 있는데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이다.

천왕문 마당에는 4각9층탑(약 6m)과 만세루, 8각13층탑(약 10m)과 대웅전이 차례로 있다.

보현사에는 《팔만대장경》보존고가 민족건축물로 훌륭히 세워졌으며 금강산 유점사종과 성동리 다라니석당이 옮겨져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보현사에는 조선의 선조들의 반침략애국투쟁사실도 깃들어있다. 1216년 9월 외래침략자들이 쳐들어와 보현사에 불을 지르자 고려군사들은 장군 김취려(？—1234년)의 지휘밑에 2 400여명의 적을 죽이거나 포로하였다.

묘향산의 중이던 서산대사*는 임진조국전쟁때 70살이 넘은 고령의 몸이였지만 전국각지의 중들에게 격문을 보내여 조국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때에 모인 승병들은 5 000여명에 이르렀다. 서산대사가 지휘한 의병부대는 1593년 1월 평양성을 탈환하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보현사는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를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이다.

* *서산대사(1520—1604년)*

본명은 최현응, 법명은 휴정이다.

18살에 중이 되였으며 불교교리를 깊이 연구하여 1549년에 승과에 합격하였으며 30대에는 이름높은 학자중으로 되여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였다.

룡 흥 사

룡흥사는 함경남도 영광군 봉흥리 백운산의 동북쪽중턱에 있는 고려시기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고쳐지은 절간이다.

1048년에 성불사라는 이름으로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까지 여러번 보수하였으며 1792년 4월에 화재로 모조리 불타버렸다.

1794년에 원래의 위치로부터 약 4㎞ 올라가 현재의 위치에 다시 짓고 절의 이름을 룡흥사로 고쳐불렀다. 대웅전과 운하루는 이때 지은것이며 1841년에 향로전까지 지어 절의 구색을 완전히 갖추었고 1842～1843년에 전반적으로 보수하였다.

현재 룡흥사에는 대웅전, 무량수각, 운하루, 향로전, 산신각터가 있다.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맨 뒤쪽의 높이 1.5m되는 축대우에 세워진 앞면 3간, 옆면 3간으로 된 합각지붕의 포식건물이다.

운하루는 앞면 3간, 옆면 3간의 3익공바깥도리식두공에 겹처마합각지붕을 이은 다락건물이다. 현재 운하루에는 목어(물고기처럼 생겼는데 배부분을 파내여 소리나게 한것)와 1763년에 만든 동종이 걸려있다.

앞면 6간, 옆면 4간으로 된 무량수각의 가운데 큰방은 천정에 소란반자를 대여 불상을 안치하도록 되여있다. 그 둘레에 있는 여러개의 작은 온돌방들은 중들이 있던 방이다.

대웅전 동쪽에는 앞면 4간, 옆면 2간의 배집지붕형식의 향로전이 있다.

석 왕 사

석왕사는 강원도 고산군 설봉리 설봉산기슭에 있는 고려말에 처음 세우고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확장하여 지은 절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 석왕사에는 크고작은 50여채의 건물들이 있었다. 석왕사로 들어서는 산어구에서 개울을 따라 깊숙이 들어가면 유명한 석왕사약수터가 있고 그것을 지나면 석왕사앞으로 흐르는 개울에 건너놓은 무지개모양의 돌다리우에 1751년에 세운것으로 전해지는 아담한 다리집인 불이문이 있다.

다음문은 1483년에 고쳐지은 조계문이다.

조계문을 지나면 1730년에 세운 합각지붕의 날씬한 2층다락인 설성동루가 서있다.

석왕사 중심구역의 북쪽에는 1731년에 고쳐세운 중심건물인 대웅전이 있었다.

석왕사 중심구역의 서쪽에는 다른 하나의 보조구역이 있는데 그 북쪽에는 가장 오랜 건물인 응진전이 있었다.

석왕사는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인 1951년 미제의 폭격에 의하여 대부분의 건물들은 불타없어지고 불이문, 조계문, 설성동루, 룡비루, 인지료만이 남았다.

전후부터 석왕사의 남은 건물들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문화보존정책에 의하여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박천 심원사

박천 심원사는 평안북도 박천군 상양리의 봉린산기슭에 있는 9세기에 처음 짓고 고려시기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여러차례 고쳐 지은 절이다.

현재 중심건물인 보광전과 그 남쪽에 다락건물인 청풍루가 있고 동쪽에는 중들이 살던 건물인 향로각이 있다.

앞면 3간, 옆면 2간의 합각집인 보광전에는 모란, 련꽃, 매화, 국화 등을 섬세하고 곱게 뚫어새긴 다섯가지 문짝을 규칙적으로 배치하였는데 이것은 조선의 절간문살가운데서 조각솜씨가 우수한것중의 하나이다.

기둥우에 새겨진 여의주를 얻으려는 룡과 날짐승의 형상도 대단히 훌륭하다.

건물의 안팎에는 화려한 금단청을 입혔는데 붉은색과 누런색을 적게 쓰고 청록색을 많이 씀으로써 수려한 봉린산의 풍치와 잘 어울린다.

대들보와 액방의 단청에는 억센 기상을 나타내는 룡이 그려져있다.

청풍루는 앞면 5간, 옆면 3간의 2익공겹처마합각집이다.

비탈에 세운 이 루정의 앞면은 돌기둥을 받쳤으므로 2층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현판과 함께 목어가 있다.

이밖에 심원사에는 향로각과 700여년 자란 은행나무가 있다.

심원사는 조선의 선조들의 우수한 건축술과 예술적재능을 보여주는 훌륭한 건축유산이다.

안학궁터

안학궁터는 평양시 대성구역 안학동에 있는 고구려의 왕궁터이다.

안학궁은 5세기 초엽 고구려가 수도를 국내성으로부터 평양에 옮겨오면서 건설한 왕궁이였다.

안학궁은 왕이 늘 있으면서 국가의 정사를 보던 궁성으로서 사다리형의 두터운 성벽으로 둘러막혀있었다.

궁성 한변의 길이는 각각 622m이고 그 둘레는 2 488m로서 성안넓이는 약 38만㎡에 달한다.

고구려사람들은 소문봉의 남쪽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세 물줄기를 리용하여 하나는 궁성안 동쪽 낮은 곳으로 끌어들여 못을 만들었고 다른 두 물줄기는 동, 서벽밖으로 돌려 해자(방어용물도랑)로 삼았는데 성안으로 물을 끌어들이고 내보내기 위하여 북벽과 남벽에 수구문을 설치하였다.

궁성안은 큰 궁전들과 회랑들 그리고 인공적으로 만든 산과 못들로 아름답게 꾸려져있었다.

궁전들은 남북중심축에 따라 배치되였다.

안학궁에는 총건평 3만 1 458㎡의 부지에 52채의 궁전들이 서로 처마를 맞대고 즐비하게 늘어서있었다.

안학궁은 거대한 궁전들과 다양한 정원들로 가득찬 웅장화려한 궁성으로서 당시 동방에서 위력을 떨치고있던 강대국 고구려의 국력과 기상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궁성제도는 백제와 신라에 전해지고 이후 조선의 봉건왕궁들에 계승되였다.

경 복 궁

경복궁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본왕궁(정궁)이다.

1395년에 준공되였고 1399～1426년에 거의나 사용되지 않았으며 1553년에 화재로 일부가 타버렸던것을 그후에 복구하였으나 임진조국전쟁때 불타버렸다.

1865년 개축공사를 시작할 때까지 270여년간 그냥 내버려둔채로 있었다.

개축은 1868년에 끝났다.

서울의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그 남쪽의 넓은 대지를 차지한 경복궁의 평면은 남북으로 긴 장방형 비슷하게 생겼다.

남북길이는 약 881m, 동서너비는 넓은 곳이 약 615m, 좁은 곳이 약 460m이며 부지면적은 약 43정보에 달한다.

궁성의 둘레는 높이 6.6m의 담벽으로 둘러막히고 사방에 성문을 냈다. 정문인 남문은 광화문, 동문은 건춘문, 서문은 영추문, 북문은 신무문이다.

궁성안 7천수백간의 전각들은 광화문과 금천교를 포괄하는 입구구획, 근정전과 사정전을 중심으로 한 정전구획, 강녕전과 교태전을 중심으로 한 침전구획, 경회루를 중심으로 한 연회장구획, 향원정을 중심으로 한 후원구획 등으로 나뉘여진다.

각 구획들은 각각 자기 사명에 맞게 특색있게 꾸려졌다. 정전과 관련된 구획은 위엄있고도 현란하게, 생활과 관련된 구획은 아담하고도 화려하게 조성되였다.

경복궁은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을 위해 건설된것이였으나 조선봉건왕조시기 조선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고 민족건축술이 집대성된 대표적인 유산이다.

지난날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자마자 경복궁에 몇개의 큰 건물만 남기고 4 000여간을 헐어버렸으며 1926년에는 궁성앞부분을 모조리 헐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를 세웠을뿐아니라 광화문과 강녕전, 교태전을 제멋대로 옮기고 수십채의 가치있는 건물들은 헐어버렸다.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경복궁안의 건물들이 여러채 파괴되였다.

해방후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는 경복궁에서 수많은 귀중한 유물들을 략탈해가고 한때 궁안에 병실까지 짓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2) 성

대성산성

대성산성은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동에 있는 3～5세기에 쌓은 고구려의 산성이다.

둘레가 7 076m, 겹성을 포함한 성벽의 총길이가 9 284m인 대성산성은 수백개의 고구려산성가운데서 가장 큰 성의 하나이다.

이 성은 427년 고구려가 수도를 평양 안학궁일대로 옮길 때 수도방위성으로 리용되였다.

대성산성은 을지봉(274m)을 중심으로 남쪽으로부터 소문봉, 을지봉, 장수봉, 북장대, 국사봉, 주작봉의 6개 봉우리들을 련결하였으며 그 안에 2개의 넓고 깊은 골짜기를 끼고있어 많은 사람들과 전투기자재 및 물자들을 수용하고 보관할수 있었다.

대성산성은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쌓은 성이다. 성의 북쪽에는 험준한 산줄기들이 첩첩히 잇닿아있고 동쪽과 서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었으며 남쪽에는 대동강쪽으로 향한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겹성을 튼튼히 쌓았다. 그리하여 대성산성은 적이 쳐들어오기에는 매우 힘들고 방어하기에는 유리한 성새였다.

대성산성의 성돌은 대성산과 그 부근의 자연돌을 일정한 크기의 4각추모양으로 다듬어 썼다.

성벽은 성돌을 벽돌쌓듯이 서로 어긋물려 일매지게 튼튼히 쌓았다.

성벽의 요소마다에는 성벽에 다가오는 적을 앞과 옆에서 치기 위하여 밖으로 내밀어 쌓은 성벽시설물인 치를 설치하였다.

성벽이 꺾이는 모서리에는 각루를 설치하였다.

대성산성 성벽쌓기에서 특히 주목되는것은 그 기초시설이다.

물이 자꾸 스며들면 성벽의 기초가 허물어질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돌기둥처럼 돌들을 땅속깊이 묻고 그사이사이에는 공간을 내든가 모래를 채워 물이 잘 빠지게 하는 수법을 썼다.

대성산성에서는 20개의 크고작은 성문터들이 드러났다.

정문인 남문은 이 산성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성문이다.

대성산성에는 물원천이 매우 풍부하였다. 대성산성에는 170개의 못이 있었다.

전설에 의하면 대성산성에 있는 99개의 못에는 9마리의 룡이 살고있어 왕가물때 못의 물이 마를 지경이 되면 룡이 조화를 부려 언제나 물이 마르지 않았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속에 대성산성과 그 부근의 유적들은 전면적으로 조사발굴되였으며 대성산성 남문과 소문봉성벽의 일부 구간 그리고 장대들, 주요 옛 못들이 복구되였다.

대성산성은 평양의 오랜 력사와 우수한 문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황룡산성

황룡산성은 남포시 룡강군 옥도리의 오석산에 있는 고구려의 산성이다.

이 성은 8개의 봉우리와 릉선을 련결하여 쌓은 고로봉식산성(네면이 높은 산등으로 둘러막히고 가운데에 골짜기나 공지를 끼고있는 성)이다.

성의 둘레는 6 620m로서 그 평면은 타원형에 가까우며 산릉선을 따라가면서 돌로 쌓은 성벽의 높이는 보통 4～5m이다.

험한 봉우리와 절벽이 많은 곳에서는 절벽을 그대로 성벽으로 삼았으며 성벽의 대부분은 릉선을 따라 잘 다듬은 성돌을 바깥부분에만 쌓았다. 옥도벌에 잇닿은 남쪽골짜기와 지형이 비교적 낮은 북쪽기슭에는 특별한 주의를 돌려 기초부분에 큰돌을 놓고 그우에 4각추모양의 성돌을 량면쌓기방법으로 차곡차곡 올려쌓았다. 이곳 성벽은 굽도리를 조성하고 밑으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성돌을 조금씩 물려 계단식으로 쌓는 방법과 전반적으로 경사를 지어 쌓는 방법을 배합하였다.

성문은 동서남북에 지형상 유리한 곳에 냈다.

성안에는 풍부한 물원천이 있었다. 옛 기록에는 10개의 샘물과 3개의 못이 있었다고 한다. 현재도 여덟군데에서 큰 샘물이 솟아나고있다.

산성의 동, 서, 남, 북 네 봉우리에 장대터가 있고 성안에는 고구려기와쪼각들이 많으며 성주변에는 수백기의 고구려무덤들이 있다.

황룡산성은 고구려의 수도 평양으로 침입하는 외적들을 서쪽에서 막는 위성의 역할을 하였다.

황룡산성에는 외래침략으로부터 조국강토를 지켜싸운 조선인민의 애국주의정신이 깃들어있다.

평 양 성

평양성은 평양시 중구역, 평천구역에 있는 고구려의 수도성유적이다.

고구려는 427년 국내성으로부터 수도를 평양의 대성산일대로 옮겼다. 그때에는 국내성에서와 마찬가지로 궁성(안학궁)을 평지에 쌓고 그곁에 산성(대성산성)을 두어 일단 유사시에는 모두 산성안에 들어가 적들과 싸우게 되여있었다.

그러나 국력이 더욱 강해지고 여러차례의 전쟁경험을 쌓은 고구려는 수도를 적의 침략으로부터 더 잘 지켜내기 위한 도성 즉 도시전체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성을 쌓게 되였다.

그리하여 552∼586년에 쌓은것이 평양성이다.

고구려사람들은 전쟁경험에 기초하여 평양성을 평산성(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한 형식의 성)으로 쌓았다.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이 합치는 곳에 이루어진 남북으로 긴 지대를 차지하였다. 이곳은 평양준평원지대에서도 벌과 야산들을 적당하게 포함한 유리한 지대로서 성벽은 평지도 둘러막고 산지도 둘러막아 평지성과 산성의 유리한 점들을 다 갖추었다. 그리고 평양성에서 세면을 둘러막은 대동강과 보통강은 자연적인 해자로서 성의 방어력을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평양산성의 둘레는 약 16km이며 그 성벽의 총 연장길이는 약 23km이다.

평양성안은 4개의 부분성(내성, 중성, 외성, 북성)으로 나누었으며 북성의 북쪽에는 철성(기본성벽에서 삐여져나오게 덧쌓은 성)을 두었다.

평양성에는 7개의 장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은 내성의 을밀대와 북성의 최승대이다.

평양성에서는 지금까지 글자새긴 고구려성돌이 6개 알려졌는데 그에 의하여 평양성의 축조년대와 함께 성벽공사의 담당구간, 담당자의 이름과 벼슬 등이 밝혀졌다.

평양성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 고구려 후기의 수도성제도와 그 발전모습, 고구려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을 잘 보여준다.

구 주 성

구주성은 평안북도 구성시에 있는 고려시기의 성이다.

고려시기에는 구성을 구주라고 불렀다. 구주는 북방에서 계속 쳐들어오는 침략자들을 막는데서 중요한 지역이였으므로 고려봉건정부는 이곳을 군사요충지로 삼았다.

구주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내성은 둘레가 약 5 023m이며 외성은 둘레가 약 1 480m이다.

구주성은 994년에 쌓고 1009년이후 여러차례 보수되면서 조선봉건왕조 말기까지 리용되였다.

내성의 동쪽벽과 북쪽벽은 절벽을 따라 쌓았고 서쪽벽은 릉선의 바깥면에 외면쌓기방법으로 쌓았으며 남쪽평지대의 일부만은 량면쌓기방법으로 쌓았다.

내성과 외성에는 여러개의 문이 있었는데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무참히 파괴되였다. 그후 옛 모습대로 웅장하게 복구하였다.

구주성의 전망이 좋은 곳에는 북장대, 서장대, 남장대 등이 자리잡고있다.

구주성은 고려시기 외적들을 쳐물리치는데서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1231년 네차례에 걸쳐 진행된 구주성방어전투에서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불굴의 항전을 벌려 외래침략군을 모두 물리치고 성을 고수함으로써 중세전쟁력사상 보기 드문 대승리를 이룩하였으며 고구려에서 창조된 산성방위전술을 더욱 발전시키였다.

구주성은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위훈을 떨친 선조들의 높은 애국심을 길이 전하며 오늘도 옛 모습 그대로 잘 보존관리되고있다.

개 성 성

개성성은 고려(918—1392년)의 수도성이다.

918년 6월 고려왕조를 수립한 왕건은 919년 1월 철원으로부터 송악산남쪽의 개성군으로 수도를 옮기고 송악군과 개성군을 합쳐 개주로 만들었으며 발어참성(896년)의 남쪽부분을 궁성으로 리용하였을뿐 수도전체를 둘러막은 성은 쌓지 않았다.

10세기말～11세기초에 진행된 3차에 걸치는 외래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수도를 방위하는 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고려는 발어참성에 덧붙여 1009~1029년에 수도전체를 둘러막는 성인 개성성을 쌓았다.

성벽(둘레 23㎞)은 송악산과 같이 바위가 많은 곳에서는 돌을 기본으로 하여 쌓고 석비레땅에서는 속에 석비레를 다져넣고 겉은 돌로 쌓았으며 또 일부 구간에서는 흙으로만 쌓기도 하였다.

개성성에는 큰문만 하여도 8개, 중간크기의 문이 4개, 작은 문이 13개나 되였다.

개성성은 원래 발어참성안에 자리잡고있던 궁성과 황성 그리고 외성으로 되여있었으나 1391~1394년에 내성이 쌓아져 결국 4개의 부분성으로 이루어지게 되였다.

내성의 정문인 남대문은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불타버렸으나 1954년 옛 모습대로 복구되였다.

오늘 개성성과 그안에 있는 수많은 유적들은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수원성

수원성은 경기도 수원을 둘러싼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도시성이다.

1794~1796년에 실학자들의 축성리론에 기초하여 쌓은 성이다.

수원성은 남쪽의 팔달산과 그 동, 서, 북 세면의 평지와 언덕을 잘 리용하여 쌓은 평산성이다.

성의 둘레는 약 5 200m이다.

성의 기초는 땅을 깊이 파고 바닥을 다진 다음 물을 조금씩 부으면서 모래와 잔자갈을 한벌 깔고 그우에 보드라운 흙을 덮고 두들겨 다졌다. 이런 방법을 되풀이하면서 땅걸면까지 다져올리고 거기에 돌기초를 놓았다.

성벽을 쌓는데는 주로 일정한 규격으로 다듬은 돌과 벽돌을 사용하였다.

산지대에서 성벽을 쌓을 때에는 산등성이 바깥경사면을 깎아내리고 거기에 의지하여 성돌을 쌓아올렸다. 성벽은 화약무기가 사용되는 조건에 맞게 두껍게 하고 또 성벽의 허리가 안으로 휘여들게 쌓아 적들이 쉽게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성벽우에는 여러가지 성가퀴를 1 440개나 쌓아놓았다. 매개 성가퀴에는 량쪽에 멀리 쏘는 구멍을 내고 한가운데에 가까이 쏘는 구멍을 냈다.

수원성의 성문들에는 여러가지 형식의 옹성을 달았다. 옹성의 문은 앞에도 내고 옆에도 내여 적들이 성안으로 쉽게 기여들수 없게 하였다.

수원성의 성벽에는 각루, 적대, 치, 장대 등 여러가지 방어용시설물들도 갖추어져있다. 성안에는 행궁과 무기고, 식량과 그밖의 전시에 필요한 물자를 넣어두는 많은 창고가 있었다.

수원성을 쌓는데는 거중기(기중기)와 같은 기계들도 도입되였다. 《화성성역의궤》(1796년 편찬)는 수원성건설공사 전 과정을 담은 민족고전이다.

이처럼 수원성은 조선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성건축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의 하나이다.

3) 무 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안악3호무덤은 황해남도 안악군 오국리에 있는 고구려 21대왕인 고국원왕(331—371년)의 무덤이다. 1949년 4월에 발굴되였다.

4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이 무덤은 규모로 보나 벽화의 내용과 그에 담겨져있는 력사적 및 미술사적가치로 보나 고구려벽화무덤을 대표하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세계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이 무덤은 전망이 좋은 좀 높직한 언덕우에 넓은 움을 파고 그안에 큰 판돌로 여러개의 무덤칸을 만든 반지하의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칸우에는 방대형의 큰 무덤무지를 쌓아올렸는데 그 크기는 남북 약 33m, 동서 약 30m, 높이 약 6m이다.

무덤칸은 문칸, 앞칸, 안칸, 앞칸동서의 두 결칸, ㄱ자형의 회랑 등으로 이루어졌다.

지하궁전을 방불케하는 무덤칸의 복잡한 구조는 고구려 왕실귀족들의 웅장하고 화려한 주택을 그대로 옮겨다놓으려고 한데서 생겨난것이다.

이 무덤안에 들어서면 누구나 다 그 돌다루기기술에 놀란다.

여러칸의 매 벽면이 거의 한장의 판돌로 세워졌으며 그 중 하나는 그 길이가 4.68m나 된다.

또한 문칸의 두짝돌문 한장의 무게는 반t이 넘는데 그처럼 크고 무거운 돌문이 가볍게 여닫기고 두 문짝이 잘 맞물리면서도 서로 마주쳐 깨여지지 않도록 서로 비껴맞게 한것은 높은 돌다루기기교를 보여주는것이다.

이 무덤은 인물풍속도를 주제로 한 벽화무덤으로서 벽면과 천정에 화려한 채색벽화가 그려져있다. 벽화는 돌벽우에 직접 그렸다.

서쪽결칸에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고국원왕이 정사를 보는 장면과 왕비가 시녀들을 거느리고있는 장면 등을 그렸다.

무덤의 벽화는 천수백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렀으나 아직도 선명한 색채와 생동한 화법이 그대로 남아있어 고구려회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준다.

벽화중에서 특히 잘된것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림들이다.

주인공의 화상은 신분상 지위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여 그리는 위계법이 적용된 시대적인 제한성이 있기는 하나 조선의 초상미술의 오랜 연원을 밝혀주는 귀중한 그림이다.

무덤의 벽화는 250여명이 넘는 등장인물의 수와 화면의 크기, 복잡하고 다채로운 내용면에서 보아도 조선의 고분벽화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물론 세계미술사에서도 손꼽힐만한 걸작이다.

이 무덤은 무덤칸의 구조와 벽화내용을 통하여 고구려의 력사와 풍습, 건축, 회화, 음악, 무용, 무기, 무장 등 여러 분야의 사실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오늘 이 유적은 동방의 강국이였던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발전면모를 전하며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덕흥리벽화무덤

덕흥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무학산의 서쪽봉우리인 옥녀봉의 남단 전망이 좋은 언덕우에 있는 5세기초 고구려의 돌칸흙무덤이다.

덕흥리벽화무덤은 《영락 18년》이라는 절대년도가 씌여져있는 아주 귀중한 무덤이다.

영락 18년은 408년에 해당된다. 지금까지 근 100기에 달하는 고구려벽화무덤들이 알려졌지만 이 무덤처럼 쌓은 년대가 명백히 밝혀져있는것은 없다.

이 무덤은 안길과 앞칸, 안칸 그리고 사이길로 이루어진 두칸무덤으로서 무덤주인공은 고구려의 유주자사(중국 베이징부근에 있던 고구려지방행정단위의 장관)를 지낸 진이다.

무덤안의 벽과 천정에는 여러가지 내용의 그림들과 그것을 설명하는 600여자의 글자가 씌여져있다.

무덤안길 좌우벽에는 문지기괴물과 인물들이 그려져있으며 이 무덤의 문을 409년 2월 2일에 닫았다는 내용의 글이 적혀있다.

앞칸의 북벽 사이길우에는 이 무덤의 주인공의 래력과 관련한 내용의 묘지명이 적혀있다.

앞칸의 벽면들에는 무덤주인공의 공적생활과 관련한 그림들이 묘사되여있다.

앞칸천정에는 해, 달, 별, 련꽃, 사냥 등 그림과 함께

견우와 직녀, 환상적인 신앙세계를 반영한 그림과 그에 대한 설명문이 있다.

사이길 동서벽에는 주인공부부의 나들이장면이 그려져있는데 색동주름치마를 입은 녀인들이 특별히 눈에 띄운다.

안칸에는 주로 주인공의 장방생활, 칠보행사, 말타고 활쏘는 경기 등 개인생활을 반영한 그림들이 그려져있다. 네 모서리와 천정에는 기둥, 두공, 도리 등을 그려 집안처럼 꾸미였다.

덕흥리벽화무덤은 4세기 후반기～5세기초 고구려의 강대성과 우수한 문화, 풍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 력사문화유적이다.

장군무덤

장군무덤은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성인 국내성이였던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서 동북쪽으로 7.5㎞ 떨어진 룡산 남쪽기슭에 있는 왕릉급돌각담무덤이다.

4～5세기에 축조된 이 무덤에 반영된 뛰여난 돌가공기술과 돌축조기술, 하늘을 향해 우뚝 솟아있는 웅대한 모습은 고구려의 강대한 위용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무덤의 외형은 웃봉분이 둥근 방대형이다. 무덤무지는 계단모양이고 평면은 4각형이며 밑면 한변의 길이는 32m, 7층으로 쌓아올린 무덤전체의 높이는 13m이다.

여기에는 장방형으로 다듬은 화강암석재가 무려 1 100여개나 사용되였다.

그중 가장 큰 돌은 길이 5.7m, 너비 1.2m, 두께

1.1m나 된다.

무덤무지밑단의 네 면에는 기둥모양의 큰 버팀돌을 3개씩 비스듬히 기대여놓았는데 커다란 자연돌들은 그 무게가 수십t에 달하며 그중 가장 작은 돌의 무게도 15t이상이다.

매개 단들은 밑단으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점차 그 높이를 줄이고 안쪽으로 들여쌓아서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나게 하였다.

석재들은 모두 바위처럼 큰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밀하게 다듬었을뿐아니라 그것을 쌓는데는 아래돌웃면에 턱을 지음으로써 웃돌이 잘 물려서 밀려나지 않도록 하였다.

무덤축조자들의 돌쌓기솜씨가 얼마나 정교한지 매 돌들의 사이는 얇은 종이 한장도 들이밀 틈이 없이 맞물려 쌓아져있다.

장군무덤의 맨 웃단인 제7층 웃부분변두리에서는 기둥을 세웠던 구멍과 기와쪼각들이 드러났는데 원래 무덤무지우에 비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기와를 씌운 목조건물이 세워졌던것으로 인정된다.

무덤무지밑단주위에는 3m 너비의 판돌을 깔고 그에 이어서 30m 너비로 강돌을 폈다.

그밖으로는 한변의 길이가 100m 넘는 돌담을 둘러 묘역시설을 한 흔적이 있다.

무덤칸은 3단우에 있는데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외칸으로 되여있고 특별히 잘 다듬은 돌들로 쌓아졌다.

무덤칸은 안길의 길이가 8.3m, 높이가 2m이고 안칸의 길이가 5.4m, 높이가 5.1m이다. 안칸바닥에는 좌우에 관대를 놓았다.

장군무덤과 같은 대형의 계단돌각담무덤의 규모와 구조, 축조술, 주변시설물들은 고구려의 왕릉급무덤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장군무덤은 비록 지배계급의 권위를 시위하기 위하여 웅장하게 만든것이지만 고구려사람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돌가공기술이 깃들어있는 가치있는 유산이다.

장군무덤은 조선민족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고구려의 위용과 담대한 기상을 보여주듯 1 500여년이 지난 오늘도 본래의 모습 그대로 거연히 솟아있다.

동명왕릉

동명왕릉은 평양시 력포구역 룡산리에 있는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B.C. 277—B.C. 259년)의 무덤이다.

동명왕(고주몽)은 조선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봉건국가 고구려를 세운 왕이다.

동명왕릉은 원래 동명왕이 활동하다가 사망한 고구려의 첫 수도 졸본에 있었으나 예로부터 수도를 옮길 때마다 시조의 무덤을 함께 옮기던 조선의 선조들의 풍습에 따라 427년에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면서 현재의 위치에 가져온것이다.

동명왕릉은 1993년 5월에 훌륭히 개건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동명왕릉을 10여차례 현지지도하시였으며 개건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한자로 **《동명왕릉개건기념비》**라고 친히 써주시였다.

새로 개건된 동명왕릉은 고구려의 위용을 시위하듯

웅장하게 서있다.

동명왕릉은 돌칸흙무덤이며 무덤무지의 높이는 8.15m이다.

무덤무지의 밑부분은 네면에 돌을 다듬어 밑단을 쌓았는데 그 한변의 길이는 22m이다. 무덤무지안에는 안길, 문칸, 안칸으로 이루어진 무덤칸이 있다.

안칸은 방형평면에 꺾음천정으로 되여있는데 벽과 천정에는 도안화된 련꽃무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려져있다. 지금 알아볼수 있는것은 104개이다.

평양에 동명왕릉을 건설하고 옮겨오던 5세기 초엽에는 고구려에서 무덤벽화로 여러 인물들과 생활풍속을 형상한 그림을 많이 그리던 시기이다. 그런데 이때에는 동명왕이 죽을 때의 용모와 생활을 알수 없었기때문에 련꽃무늬로 대치한것이라고 인정된다.

동명왕이 죽은 B.C. 3세기 중엽에는 고구려에 아직 무덤에 벽화를 그리는 관습이 없었던것이다. 동명왕릉앞에는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고구려 당대의 모습을 살려 규모있게 세워져있다.

동명왕릉이 있는 무덤구역은 두단으로 이루어져있다.

웃단에는 왕릉과 그 앞면에 돌상과 돌등, 2개의 범조각상이 있고 좌우에는 동명왕을 받들어 고구려국가를 세우고 그 발전에 기여한 문무관료 8명의 조각상들과 그들이 타던 말조각상들이 세워져있다. 이밖에 망주석과 돌화로들이 배치되여있다.

아래단의 동쪽에는 《고구려시조 동명성왕비》와 《고구려시조 동명성왕기적비》가 세워져있고 서쪽에는 동명왕을 위한 제당건물(170㎡)이 있으며 남쪽에는 4개의 기둥으로

받쳐진 고구려양식의 릉문이 있다.

동명왕릉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20m 떨어진 곳에는 동명왕의 명복을 빌던 고구려의 절간인 정릉사가 있다.

동명왕릉주위에는 고구려의 돌칸흙무덤들도 수많이 분포되여있다.

무덤들에는 동명왕과 함께 고구려봉건국가를 세우는데 참가하였거나 외래침략자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켜 용감히 싸웠으며 고구려의 강화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한 장군, 대신, 학자들이 묻혀있다.

고구려의 력사와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이 깃들어있는 동명왕릉은 조선인민들과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름난 문화유적으로 되고있다.

수산리벽화무덤

수산리벽화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수산리에 있는 5세기 후반기 고구려귀족의 무덤이다.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돌칸흙무덤이다.

무덤칸의 바닥에는 석비레를 다져 깔았으며 벽은 납작납작한 화강석을 회와 진흙에 물려쌓고 그우에 회죽미장을 하였다.

수산리벽화무덤에는 인물풍속을 주제로 한 벽화가 그려져있다.

주인공부부가 아름다운 장막을 친 화려한 방에서 남녀시중군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장면과 교예를 구경하는 장면 등이 그려져있다.

이 무덤의 벽화에서 흥미있는것은 서쪽벽에 그린 교예장면이다.

3명의 교예사는 모두 바지저고리를 입고 다리에는 행전을 친 간편한 옷차림을 하였다.

그가운데서 한사람은 높은 나무다리를 타고 발재주를 부리며 다른 두사람은 바퀴, 고리, 막대기 같은것을 하늘높이 던져올려 손재주를 부리고있다.

이 교예그림은 고구려에서 일찍부터 교예가 발전하였다는 사실과 고구려사람들의 락천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벽화의 중요한 특징은 섬세하고 우아하며 아름답고 선명한것이다.

벽화에서는 명주실과 같이 가늘고 부드러운 선과 아름다운 채색으로 허리에 띠를 맨 긴 저고리에 주름치마와 색동주름치마를 입은 녀인들의 단정한 몸매와 우아한 옷차림, 어여쁜 얼굴 특히 녀주인공의 반달같은 눈섭, 부드러운 눈매와 웃음어린 빨간 입술을 솜씨있게 형상하였다.

이 무덤벽화와의 공통성은 1972년에 발견된 7세기 일본왕실의 무덤인 다까마쯔즈까무덤의 벽화에서 나타난다. 벽화에 그려진 녀인들이 긴 저고리에 색동주름치마를 입은것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벽화배치와 벽화내용, 그림솜씨 등은 고구려회화기법의 영향을 보여준다.

수산리벽화무덤은 조선의 선조들의 건축기술, 부드럽고 아름다운 회화기법, 일본의 문화발전에 미친 고구려의 문화적영향을 잘 보여주고있다.

금관무덤

금관무덤은 경상북도 경주시 로서동에 있는 5세기 중말엽 전기신라왕의 무덤이다. 화려한 금관이 나왔기때문에 금관무덤이라고 부른다. 곽이 하나인 나무곽돌무덤인데 발견당시 이미 원래의 모습이 파괴되여 정확한 규모와 짜임새는 잘 알수 없었다. 무덤무지의 직경은 약 45m, 높이 약 12m, 길이 약 5m, 너비 약 2m 정도로 추정된다.

이 무덤에서는 금관, 과대(장식띠), 금팔찌, 금반지, 금귀걸이, 각종 구슬류 등 치레거리와 금동고리자루긴칼을 비롯한 무기류, 금동말안장턱과 청동등자를 비롯한 마구류, 청동네귀단지와 청동초두, 칠기, 유리그릇 등 4만여점의 유물들이 나왔는데 순금제품이 많다.

높이가 44.4㎝인 금관은 얇은 금판을 오려만든 바탕띠우에 모두 5개의 장식품을 세운 외관과 관모우에 새깃모양장식물을 높이 꽂은 내관으로 이루어졌다. 외관에는 130개의 보요와 57개의 굽은구슬, 내관에는 200여개의 보요를 가는 금실로 매여달아 조금만 움직여도 그것들이 가벼이 흔들리면서 눈부신 빛을 뿌리고 잔잔한 소리를 내여 호화로움과 아름다움을 돋구게 되여있다. 이 금관은 전기신라 금속공예술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걸작으로서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다.

이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은 그 어느것이나 할것없이 당시로서는 대단히 높은 수준에서 훌륭하게 만들어진것으로서 삼국시기 조선인민들의 뛰여난 금속공예술을 잘 보여준다.

무녕왕릉

무녕왕릉은 충청남도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백제 무녕왕(501—523년)의 무덤이다.

무덤안에서 드러난 왕과 왕비의 묘지석에 의하면 왕은 523년 5월에 죽어서 525년 8월에 묻혔으며 왕비는 526년 12월에 죽어서 529년 2월에 이 릉에 합장되였다. 백제무덤에서 묘지석이 드러난 례는 이것이 처음이다.

이 무덤의 봉분은 물이 스며들거나 흙이 씻겨내리지 않게 진흙에 모래와 석회를 잘 섞어서 단단하게 다져놓았으며 그 직경은 약 20m, 높이는 약 7.7m이다.

안길과 안칸으로 이루어진 무덤칸은 모두 벽돌로 궁륭식으로 쌓았다. 벽돌에는 련꽃무늬와 인동무늬, 기하학적 무늬 등 아름다운 무늬들이 돋우새겨져있다.

무녕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금관을 비롯하여 금귀걸이와 금목걸이, 금팔찌, 은팔찌 등 금, 은, 옥, 유리로 만든 88종 3 000여점의 화려한 유물들이 나와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백제유적에서 처음 알려진 금귀걸이는 루금세공술의 뛰여난 솜씨와 모양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고있다.

처음으로 나온 2개의 금목걸이는 왕비의것인데 간소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훌륭한것이다. 팔찌도 금과 은으로 만든것이 나왔다.

무녕왕릉과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른 백제인민들의 섬세하고 세련된 돌가공기술과 돌축조기술, 금속공예술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강서세무덤

강서세무덤은 남포시 강서구역 삼묘리벌판에 있는 세개의 고구려무덤이다. 그중 남쪽에 있는것이 큰 무덤이고 그 뒤에 나란히 놓인 두 무덤가운데서 서쪽의것이 중무덤, 동쪽의것이 작은 무덤이다.

강서세무덤은 방대형으로 쌓은 무덤무지안에 잘 다듬은 화강석판돌로 안칸과 그 남쪽벽가운데에 안길을 만든 외칸짜리 돌칸흙무덤들이다.

큰 무덤과 중무덤에는 벽화(사신도)가 있고 안칸입구에 두짝문을 달았던 문확자리가 남아있다.

큰 무덤의 안칸은 장방형이며 천정은 평행삼각고임식이다.

바닥에는 두장의 잘 다듬은 판돌을 깔고 굽도리돌을 댔다.

안칸의 벽면은 길죽한 판돌 2~3장을 수직으로 포개여 쌓으면서 웃부분이 안으로 기울어지게 다듬었으며 여기에 맞추어 네구석에 5각형의 구석돌을 끼워넣어 모를 죽였는데 이것은 안칸안이 직선과 평면만으로 이루어질 때 조성되는 딱딱한 느낌을 없애기 위한 건축공법이다. 강서큰무덤은 이와 같이 당시로서는 높은 과학기술적타산에 기초한 치밀한 설계와 능숙한 시공, 세련된 돌다루기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석조예술품이다.

큰 무덤의 벽화는 안칸돌벽면에 사신이, 천정에 련꽃무늬, 인동넝쿨무늬, 구름무늬, 산수, 기린, 봉황, 비어, 비천, 신선, 천인, 황룡 등이 그려져있다.

벽화중에서 잘된것은 청룡도와 현무도이다.

동쪽벽의 청룡도는 날아가는 청룡의 기운찬 모습을 힘있고 생동하게 잘 나타냈고 마치 살아있는 청룡을 보는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북쪽벽의 현무도는 달리는 거부기의 몸을 뱀이 휘감고 도는것인데 유연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훌륭한 구도와 세련된 화법으로 하여 이 그림은 거부기와 뱀이 살아서 꿈틀거리는듯 한 운동감은 물론 짐승들의 고유한 질감까지 잘 나타내고있다.

중무덤은 안칸의 천정이 평행고임식이다.

중무덤의 벽화는 큰 무덤에서와 같이 안칸돌벽면에 사신이, 천정에 인동넝쿨무늬, 구름무늬, 봉황새, 해와 달이 그려진것으로서 화법이나 채색 등이 비슷하다. 특히 백호도와 주작도가 걸작인데 백호도는 내닫는 범의 골격과 근육의 움직임을 생동하게 표현하여 속도감과 박력감을 잘 나타내였다.

주작도는 여의주를 물고 날개를 한껏 벌리고있는 봉황의 모습인데 갖가지 채색과 선들을 능숙하게 써서 리상적이고 아름다운 새로 형상하였다.

큰 무덤의 현무도와 청룡도, 중무덤의 백호도와 주작도는 당시 동방미술의 꽃을 피운 고구려회화 특히 사신도미술을 대표하는 걸작품들로 인정되고있다.

작은 무덤은 안칸의 천정이 평행삼각고임식이다. 이 무덤에는 벽화가 없다.

참으로 강서세무덤의 무덤칸축조술과 거기에 그려진 벽화들은 세계문화보물고에 크게 이바지한 조선민족의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왕건왕릉

왕건왕릉은 개성시 해선리에 있는 고려태조 왕건(918—943년)의 무덤이다.

왕건은 조선의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92년 5월 5일 왕릉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왕건왕릉은 1994년에 고려태조릉답게 훌륭히 개건되였다.

개건전 왕건왕릉의 무덤구역은 3개 단으로 나누어져있었으나 새로 개건된 무덤구역은 화강암축대들에 의하여 4개의 단으로 나뉘여졌다.

제1단에는 무덤무지와 돌란간, 돌범, 상돌, 망주석 등이 배치되였다.

무덤무지의 직경은 19m, 높이 8m이며 무덤무지 밑부분에 돌려진 12각형의 병풍돌 한변의 길이는 5.03m, 높이 2.01m이다. 무덤무지 네 모서리에 돌범이 한개씩 놓여있다.

제2단의 중심에는 돌등이 있고 좌, 우 량쪽에는 돌사람이 두상씩 마주 세워져있다. 서쪽의 돌사람은 무관이고 동쪽의 돌사람은 문관으로서 모두 왕건에게 충실하였던 신하들을 형상하였다.

제3단에도 돌사람이 좌, 우 량쪽에 두상씩 마주 세워져있는데 그 구성과 크기는 제2단의것과 같다.

제4단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한자로 쓰신 **《고려태조 왕건왕릉개건비》**와 제당, 비각, 릉문 등이 배치되여있다.

왕건왕릉은 주검칸(안칸)이 반지하에 만들어진 외칸짜리

돌칸흙무덤이다. 주검칸의 네 벽은 잘 다듬은 화강암판돌로 축조되였으며 천정은 한단의 평행고임을 하고 그우에 판돌을 덮어놓은 평행고임식천정구조로 되여있다.

왕건왕릉의 벽면에는 식물도와 사신도주제의 벽화가, 천정에는 별그림이 그려졌다.

원래의 왕건왕릉주검칸에서는 옥띠장식 2개, 국화무늬를 상감한 청자술잔 1개, 금동장식품, 놋주전자 등 유물들이 나왔으며 무덤무지주변의 구뎅이에서도 왕건을 형상한 금동좌상 1개, 옥띠장식, 금동띠고리 등 유물들이 드러났다.

오늘 왕건왕릉은 조선로동당의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민족의 재보로 찬란히 빛을 뿌리고있다.

공민왕릉

공민왕릉은 개성시 해선리 봉명산에서 뻗어내린 무선봉중턱에 있는 고려 제31대왕인 공민왕(1352—1374년)의 무덤(현릉)과 그의 안해의 무덤(정릉)이 나란히 놓여있는 쌍릉형식의 무덤이다.

공민왕의 직접적인 주관밑에 1365～1372년에 건설되였다.

공민왕릉의 무덤구역은 4개의 단으로 나뉘여져있는데 제일 낮은 단에서 맨우 제1단까지의 높이는 15m이다.

동서 40m, 남북 24m인 제1단 중앙에 있는 현릉과 정릉은 1m 높이로 쌓은 12각형 돌밑단우에 놓였다.

제1단의 동, 서, 북 세면에는 화강석으로 쌓은 높이 3m되는 담장이 있다. 무덤무지밑둘레에는 12각형의

병풍돌을 돌려놓았으며 그와 병행하여 12각형의 란간돌을 둘렀다. 병풍돌의 매 면에는 쥐, 소, 범, 토끼 등 해당 방위를 표시한 12지신과 꽃무늬들이 부각되여있다.

무덤무지의 높이는 약 6.5m, 병풍돌의 대각직경은 13.7m, 두 무덤무지사이의 간격은 0.5m이다.

제2단에는 2개의 돌등과 4개의 돌문관상이 배치되여있다. 돌등은 매 무덤무지의 남북중심축과 일치되는곳에 놓여있으며 문관상은 좌우측에 각각 2상씩 대칭되게 놓여있다.

제3단의 좌, 우 량쪽에는 돌무관상이 각각 2상씩 배치되여있다.

공민왕릉의 문무관조각상들에는 옷차림과 몸가짐새, 몸체와 얼굴의 세부형상에서 매 인물들의 성격상특징이 두드러지게 잘 나타나며 산을 배경으로 한 자연환경속에서 야외조각으로서의 특성이 잘 나타난다.

제4단은 경사지에 설치된 여러개의 돌축대들과 그밑에 있는 정자각터로 이루어졌다.

공민왕릉의 두개 무덤무지가운데서 현릉만이 발굴되였다. 현릉의 무덤칸은 무덤안길과 안칸으로 되여있다. 안칸은 질좋은 화강암판돌로 쌓았으며 천정은 평천정형식이다.

안칸의 동쪽, 서쪽, 북쪽면들과 천정에는 벽화가 그려져있다.

지난날 일제는 공민왕릉을 야수적으로 파괴하고 그안의 유물들을 모조리 략탈하여갔다.

오늘 공민왕릉은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민족문화유산보존정책에 의하여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4) 탑, 비, 돌등

다보탑과 석가탑

다보탑과 석가탑은 경상북도 경주시 불국사 대웅전앞뜰에 동서로 나란히 서있다.

불국사는 6세기 중엽에 처음 지었는데 8세기 중엽에 크게 고쳐지었다. 이때 다보탑과 석가탑도 함께 세워졌다.

다보탑은 대웅전을 향하여 오른쪽(동쪽)에 서있다.

다보탑은 잘 다듬은 260여개의 백색화강암석재를 기묘하게 무어만든 독특한 생김새로 하여 돌탑으로써는 이만한 것이 없다.

다보탑은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진 높이 10.4m되는 비교적 큰 탑이다.

아래우의 두 기단은 방형인데 아래기단에는 4면에 계단과 란간이 설치되여있으며 웃기단에는 네 모서리에 모기둥을 세우고 그우에 두공받침을 짜올렸다. 아래기단갑돌의 네 모서리우에는 원래 돌사자가 한마리씩 놓여있었는데 현재는 한마리밖에 없다.

다보탑은 전반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도 전체와 부분사이의 조화가 잘 째이였다. 이것은 이 탑의 설계에서 밑단한변의 길이를 기준크기로 설정하여 비례관계를 잘 고려하였기때문이다.

석가탑은 대웅전을 향하여 왼쪽(서쪽)에 서있다. 불국사3층탑이라고도 한다.

석가탑은 2층의 기단과 3층의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으며 높이는 8.2m이다.

다보탑이 복잡하고 아기자기하게 째인 녀성적인 탑이라면 석가탑은 그와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 일반돌탑의 전형적형식으로 간명하면서도 강한 직선적효과를 강조한 남성적인 탑이다.

지붕돌의 밑선은 직선이고 웃선은 모서리들에서 경쾌하게 들리였으며 처마받침은 모두 5단이다. 탑머리에는 현재 로반만이 남아있다.

이것은 조선인민이 예로부터 즐겨써온 강한 대조의 수법, 비대칭의 수법 등을 반영한것으로서 당시의 높은 건축예술수준을 보여주는것이다.

화엄사4사자탑

화엄사4사자탑은 전라남도 구례군 황전리 화엄사의 각황전뒤언덕에 있는 후기신라의 돌탑이다.

754년 화엄사가 확장될 때 세워졌다.

이 탑의 이름은 4마리의 돌사자조각이 탑을 떠받들고있는데서 유래되였다.

탑의 두층의 밑단과 세층의 탑몸 그리고 탑머리부분으로 이루어진 4각3층탑으로서 높이는 5.5m이다.

아래밑단은 매 면에 네모난 3개의 오목이를 옆으로 나란히 새기고 매 오목이마다에 하나씩의 천인조각상을 실감있게 부각하였다.

서로 다른 모습으로 조각된 천인들은 악기를 다루거나

춤을 추는 등 취한 자세가 각이하다.

웃밑단은 4마리의 사자가 탑몸을 떠받들고있는 매우 독특한 구조로 되여있다.

네 모서리에는 4마리의 용맹스러운 사자조각을 각각 배치하고 그 중심에 사자의 호위를 받는듯 한 중의 립상을 세워놓았다.

둥근 련꽃받침대우에 앞다리와 뒤다리를 모으고 앉아 눈을 무섭게 부릅뜨고 아가리를 벌린채로 앞을 노려보는 사자의 사나운 기상은 탑을 더욱 견고하고 위엄있어보이게 잘 형상되였다. 4마리의 돌사자들은 머리에 련꽃받침대를 이고 중과 함께 우에 있는 네모난 갑돌과 탑몸전체를 떠받들고있다.

세층으로 된 탑몸은 우로 올라가면서 보기 좋게 차례줄임이 되여 경쾌하고 산뜻한감을 준다.

1층 몸돌의 매 면가운데에는 문이 형상되여있고 문의 중심에는 자물쇠, 그밑 좌우에는 둥근띠모양의 문고리 2개가 새겨져있다. 조각한 문의 좌우에는 불상들이 각각 1상씩 새겨져있는데 남쪽면에는 인왕상이, 동쪽, 서쪽면들에는 사천왕상이, 북쪽면에는 보살상들이 배치되여있다.

2층과 3층의 탑몸은 보통 탑들에서 흔히 볼수 있는 형태로 되여있다.

탑몸 매 층의 처마는 보기 좋게 나왔으며 처마밑에 5단의 처마받침장식이 되였고 처마웃선이 량옆으로 가면서 점차 들리워져 탑전반이 솟구쳐오르는듯 한감이 난다.

탑머리에는 로반과 둥근형태의 보주 같은것이 남아있다.

화엄사4사자탑은 모양과 형태상착상이 기발하고 생동하

기때문에 보는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형식의 탑으로는 금강산 내금강의 고려시기의 탑인 금장암사자탑이 있다.

화엄사4사자탑은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완성된 건축예술작품의 하나이다.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은 강원도(남) 원주시 법천사터에 1085년에 세워졌던 고려초기 지광국사라는 중의 무덤탑(부도)이다.

일제침략자들이 략탈해갔다가 조선인민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쳐 돌려보내여 지금은 서울시 종로구 경복궁안에 세워져있다.

탑은 밑단,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고 탑의 기본평면은 방형이다.

탑의 제일 아래에는 바닥돌을 3층으로 넓게 깔면서 아래, 웃층을 넓게 잡은 계단처럼 올려쌓았고 계단 네 모서리에는 대각선방향으로 생동하게 형상된 룡모양의 버팀돌을 놓았다.

바닥돌의 두번째 층 옆면에는 련꽃모양의 오목이를 새기고 세번째 층 웃면에는 꽃무늬띠를 낮게 돋우새겨 돌림으로써 탑의 안정감을 돋구었다.

밑단은 아래밑단과 웃밑단으로 나뉘여진다.

아래밑단은 밑돌우에 그보다 좀 작은 돌을 가운데 놓고 그우에 다시 넓은 갑돌을 얹었다.

밑돌의 네 옆면은 기둥으로 세 구간씩 나누고 매 구간에 네모난 오목이를 2개씩 만들었으며 가운데돌의 매 면도 두 구간씩 나누고 그안들에는 각각 꽃무늬를 돋우새겼다. 그리고 갑돌의 옆면들에는 직선으로 된 기하학적무늬를, 웃면에는 겹으로 된 련꽃무늬를 새겼다.

웃밑단의 밑돌을 겸한 아래밑단의 갑돌 네 모서리에는 돌사자를 한마리씩 놓았다.

웃밑단 가운데돌 옆면의 매 면은 기둥으로 각각 두 구간으로 나누고 그안에 구름을 타고선 선인과 탑 같은것을 새겼다. 웃밑단의 갑돌은 량쪽끝을 약간 들리게 하고 전면에 꽃무늬같은것을 화려하게 새겼다.

탑몸은 고임을 한단 놓은 몸돌과 지붕돌로 이루어졌다.

몸돌의 매 면은 기둥과 도리모양으로 테를 둘렀으며 앞면가운데에는 쌍닫이문을 나타내고 문중심에 커다란 자물쇠를 형상하였다. 나머지 면들에는 꽃테로 된 창문을 나타내였다.

지붕돌은 처마를 물결치듯 여러곳을 가볍게 들리게 하여 육중해보이는 탑몸이 솟구쳐오르는듯 한감을 주었다.

탑머리에는 로반과 보개, 보주를 형상한것이 잘 남아있다.

법천사지광국사현묘탑은 중무덤탑으로서는 지나칠만큼 화려하게 장식된것이지만 매우 아름다우면서도 균형이 잘 잡히고 장중하며 퍽 안정해보인다.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 세련된 솜씨가 깃들어있는 이 탑은 조선의 중무덤탑들가운데서 제일 화려하고 조형예술적가치가 높아 고려인민의 높은 건축술과 조각술을 남김없이 보여주는 걸작품의 하나이다.

묘향산 보현사8각13층탑

평안북도 묘향산 보현사의 대웅전마당에 있는 고려말기의 화강석탑이다.

높이가 10.03m되는 높고 우수한 탑으로서 석가탑이라고도 부른다.

탑은 밑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져있다.

밑단은 아래밑단과 웃밑단으로 이루어져있다.

웃밑단은 바닥돌우에 받침돌을 세층으로 포개여놓은 형식이다. 웃밑단 밑돌의 웃면에는 아래로 향한 련꽃을 아로새겼고 가운데돌에는 모서리마다 모기둥을 돋쳤으며 갑돌밑면에는 우로 피여오르는 련꽃을 돋우새겼다. 8각으로 된 아래밑단 받침돌 한변의 길이는 1.2m이다. 아래밑단을 이룬 매개 받침돌의 옆면, 웃밑단 밑돌과 갑돌의 옆면들에는 선새김으로 토막토막 네모나게 구간을 나누고 그안에 오목이를 새기였다.

몸돌과 지붕돌로 이루어진 탑몸은 우로 올라가면서 그 높이와 너비를 차례로 줄이였다. 몸돌모서리마다에는 가늘게 모기둥을 나타내고 면들에는 테를 둘러 아담한 느낌이 들게 하였다.

지붕돌의 처마는 웃선과 아래선을 다같이 량끝에서 가볍게 들어올려 경쾌하게 만들었다. 8각으로 된 매 층 지붕돌의 추녀끝마다에는 풍경이 달려있는데 그 수는 본래 104개였다. 풍경은 금동으로 화려하게 만든 탑머리와 함께 미제가 일으킨 지난 조선전쟁때 미제의 폭격으로 파괴

되였었으나 후에 다시 만들어 붙이였다.

묘향산 보현사8각13층탑은 조각장식이 부드럽고 정교하며 균형이 잘 보장된것으로 하여 고려인민들의 높은 돌건축술을 잘 보여주고있다.

경천사탑

경천사탑은 개성시 광수리 부소산 남쪽기슭 경천사에 1348년에 세웠던 대리석탑이다.

탑은 밑단과 탑몸, 탑머리로 이루어졌으며 높이는 13.5m이다.

밑단은 3개의 가운데돌과 3개의 갑돌을 차례로 엇바꾸어가며 약간의 차례줄임을 주어 하나의 묵직한 덩어리처럼 보이게 하였다.

밑단의 가운데돌들에는 사람들과 부처, 꽃무늬 등을 돋우새기였으며 갑돌에도 전면에 련꽃무늬와 넝쿨로 이루어진 꽃들을 쪼아새겼다.

10층의 탑몸은 그 생김새에 따라 크게 아래부분 3개 층, 웃부분 7개 층으로 나뉘여진다. 탑몸을 아래, 우 두 부분으로 나누고 형태상변화를 주면서 탑몸 웃부분의 크기를 아래부분보다 훨씬 줄여서 대조적효과를 뚜렷하게 한것은 탑의 균형과 안정을 보장하는데서 매우 효과적이고 기발한 조형적수법이다.

탑몸의 매 층은 고임돌과 몸돌, 지붕돌로 이루어졌다.

3개 층으로 된 탑몸 아래부분의 지붕돌형상수법은 정말로 경탄할만 하다. 1～3층의 지붕돌은 다같이 합각지붕으로

하면서도 탑의 앞면에서 볼 때 1층에서는 지붕면이 나오게 하고 2층에서는 박공면이 드러나보이게 하였으며 3층은 2중지붕으로 하면서 아래지붕에서는 지붕면이, 웃지붕에서는 박공면이 드러나보이게 하였다. 지붕돌처리에서 특히 눈에 안겨오는것은 4개의 생동한 룡대가리조각을 3층지붕돌중간에 놓아 건축물의 품위를 돋군것이다.

7개 층으로 된 탑몸 웃부분의 지붕돌은 네모지붕으로 하면서 층마다 조금씩 차례줄임을 주었다. 지붕돌의 밑면에는 포식두공을 놓았다.

탑머리에는 지금 로반만이 남아있다.

경천사탑은 고려시기 조선인민의 뛰여난 건축술과 조각술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국보적건축유산이다. 이 탑은 20세기초 일제침략자들에게 강탈당하여 도꾜에 실려갔다가 조선인민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반환되여 지금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다.

광개토왕릉비

광개토왕릉비는 고구려의 두번째 수도 국내성이였던 중국 길림성 집안시 동북쪽 6㎞의 대왕촌 광개토왕(391—412년)의 릉부근에 414년에 세워진 기념비이다.

비는 받침돌과 비몸으로 구성되여있다.

받침돌은 길이 3.35m, 너비 2.7m, 두께 약 0.2m의 가공한 화강암판돌이다.

비몸(높이 6.34m, 너비 1.43～1.9m, 두께 1.53m)의 네 면에는 줄간을 치고 새긴 글자가 빼곡이 차있다. 매 글

자의 크기는 대체로 가로, 세로의 길이가 12㎝이다.

비문에는 모두 44줄에 1 775자의 글자가 내리새겨져있다.

릉비는 그 비문내용의 풍부성과 문장 및 서체의 우수성으로 하여 발견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국내외학자들의 깊은 주목을 끌고있다.

비문의 내용은 대체로 3개 부분으로 되여있다.

첫 부분에는 고구려시조 추모(동명)왕의 건국경위와 그 후 력대 왕들의 계승관계, 광개토왕의 업적에 대한 총평과 왕릉축조와 릉비건립의 목적 등이 새겨져있다.

둘째 부분에는 주로 광개토왕의 업적을 년대별, 사건별로 서술하였는데 고구려의 적대적인 나라들과 종족들을 징벌하여 침략위험을 가시고 령토를 크게 넓힌 사실, 백제, 신라를 비롯한 동족의 나라들을 막강한 영향력으로 통제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여있다.

셋째 부분에는 왕릉을 지키는 묘지기의 정원수, 그들이 지켜야 할 사항 등이 새겨져있다.

이 비문에는 삼국의 통일을 위한 고구려인민들의 투쟁과 념원이 일정하게 반영되여있다.

비문내용은 내외의 력사기록에는 전혀 없는 많은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전하고있어 고구려의 력사는 물론 당시 동북아시아력사를 정확히 리해하고 체계화하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근본자료의 하나로 된다.

광개토왕릉비는 문장이 명문이고 글씨가 뛰여나며 또 글자파기에 편리할 정도로 자연바위를 대충 다듬어 세운 웅장한 자태로 하여 고구려적인 독특한 아름다움을 잘 보여준다.

비문의 문장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력사가들도 《비문이 간결하고 호탕하여 최고급 력사책의 필법과 같다.》고 하였으며 비문의 글씨에 대하여 여러 나라 금석문(금속이나 돌에 새긴 글)학자들과 서예가들은 《어느 글자나 다 방정하고 엄격하며 소박하고 순수하니 진실로 동방제일의 보배》, 《박력있고 웅대하니 실로 료동의 제일가는 옛 비》, 《웅건한 글씨는 푸른 바다도 내리누를듯이 장중하다.》라고 찬양하여마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고고학자들과 미술사연구자들도 릉비의 독특하고 웅장한 모습에 대하여 《고구려사람들의 진취적인 기상과 고유한 풍격과 체취, 고구려의 강대한 위력앞에 압도되였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광개토왕릉비는 조선의 선조들이 남긴 글이 새겨진 비석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의 하나로서 비문에 담겨진 귀중한 력사자료, 그 풍부한 서술내용, 위풍있는 모습과 호탕하고 활달한 문장과 글씨로 하여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이 귀중히 여기는 조선민족의 훌륭한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북관대첩비

북관대첩비는 함경북도 김책시 림명리에 있는 임진조국전쟁시기 정문부(1565—1624년)의병대가 함경도지방에 침입한 왜적들을 쳐부시고 큰 승리를 이룩한것을 기념하여 1708년에 세워진 승전비이다.

비몸의 높이는 1.87m, 너비는 66㎝, 비에 새긴 글자는

1 400여자이다.

비몸앞면 웃단에는《북관대첩비》라는 제목이 전자체(한자글씨체의 한가지)로 가로 씌여져있다. 북관이란 조선봉건왕조시기 함경도(오늘의 함경남북도와 량강도, 강원도 북부의 일부 지역)를 가리키는 말이다.

비문은 서문과 명(비에 새긴 시형식의 글)으로 이루어져있다.

서문에서는 정문부가 지휘한 함경도의병투쟁의 지위를 밝힌 다음 왜적들의 침략경위와 반역자들의 준동, 정문부의병대의 조직과정과 의병대가 벌린 주요전투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이어 비를 세우게 된 경위를 밝히였다.

명의 기본내용은 왜적들이 침략하자 이를 반대하여 의병들이 떨쳐일어나 용감하게 싸움으로써 북관땅이 평정되고 백성들이 다시 편안히 농사짓게 되였다는것과 비를 세워 그 승전사실을 후손만대에 무궁토록 전한다는것으로 되여있다.

일제는 저들의 강도적침략행위와 수치스러운 참패의 진상을 가리우고 조선민족의 귀중한 력사유적을 유린말살하려는 교활하고 음흉한 목적으로부터 1904년 로일전쟁때 이 비를 도적질하여 그것을 일본군국주의의 상징인《야스구니진쟈》의 한쪽구석에 내버려두었다. 그러던것을 북과 남이 힘을 합쳐 북관대첩비를 되찾아 림명리에 원상대로 다시 세워놓았다.

오늘 북관대첩비는 조선의 선조들의 반침략투쟁력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서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표 충 비

표충비는 개성시 선죽동에 있는 고려충신으로서의 절개를 지켜 선죽교에서 피살당한 정몽주(1337—1392년)의 충절을 찬양하여 세운 비이다. 비석은 비각안에 있다.

표충비비각은 현재 공화국북반부에 남아있는 옛 비각들가운데서 가장 큰 건물로서 2익공식두공에 합각지붕을 얹고 모루단청을 곱게 입혔다.

비각안에 있는 두개의 비석은 화강암으로 만든 바닥돌과 거북받침, 비머리와 검은 대리석으로 만든 비몸으로 이루어져있다.

두단으로 이루어진 8각형바닥돌의 밑단은 좀 넓고 길며 두텁지만 웃단은 거북받침의 몸통만큼 짧고 좁으며 얇다. 바닥돌우에는 10t이 넘는 통돌을 가공하여 만든 거북받침이 놓여있다.

네발을 힘있게 디디고 목을 쑥 내민 거부기는 구성이 째이고 조각솜씨가 매우 훌륭하다. 길다란 목, 툭 튕겨나온 눈, 크게 벌린 아가리, 안으로 오그라든 뾰족한 4개의 앞이, 균형잡힌 어금이, 옆으로 나온 배에 새긴 선들, 힘있게 디딘 4개의 발과 그 발톱들, 균형이 잡히면서도 두껍고 큼직한 잔등, 목부분의 힘있고 굵직한 선 등은 거부기의 굳센 기질과 특징적인 자세들을 사실적으로 유감없이 나타내고있다. 특히 북쪽거부기의 잔등무늬는 야외에 세우는 기념비로서의 사명에 맞게 세부적인것을 피하고 대담하면서도 굵직하게 돋우새기였다.

거부기의 잔등우에 새겨진 련꽃모양의 비몸자리돌도 높은 조각기교를 보여준다.

15세기이전 비석들의 비몸자리돌에는 일반적으로 련꽃잎을 한잎한잎 라렬하였다면 여기에서는 비몸자리돌주위에 련이은 련꽃잎을 돋우새겨 전체가 한송이의 련꽃으로 보이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련꽃끝을 일정한 간격으로 크게 또는 작게 안으로 살짝 말려들게 함으로써 련꽃무늬조각에 흐름을 조성하였다. 두 비석의 거부기의 자세는 길이 및 너비와 높이의 비례가 매우 조화롭다.

두 비석의 비머리돌들은 다같이 합각식지붕형식으로 되였으며 그 처마밑들에는 꿈틀거리는 네마리씩의 룡들이 돋우새겨져 비석의 기념비성과 장식성이 두드러지고있다.

북쪽비석의 비몸 앞뒤면에는 행서체(한자글씨체의 한가지)로 비문이 새겨져있다. 앞면 웃부분에는《어제어필선죽교시》(《왕이 짓고 쓴 시 <선죽교>》라는 뜻)라는 글이 옆으로 새겨졌고 그아래에는 조선봉건왕조 영조왕(1725—1776년)이 지은 14자의 시가 새겨져있다. 뒤면에는 영조왕이 1740년 9월 개성에 왔다가 이 비를 세웠다는 내용의 비문 여섯줄이 세로 새겨져있다. 앞뒤면비문의 주요내용은 한마디로 말하여 고려왕조에 대한 정몽주의 충성을 높이 찬양한것이다.

남쪽비문의 비문 역시 거의 같은 내용으로 되여있는데 여기에서는 고종왕(1864—1907년)이 1872년에 개성에 와서 시를 짓고 비문의 글씨를 썼으며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고 하였다.

표충비는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이 당시 뒤흔들리고있던

봉건통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왕조에 충성다한 정몽주의 절개를 본받아 조선봉건왕조에 충성다하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목적에서 세운것이기는 하나 여기에는 조선의 선조들의 뛰여난 재능과 지혜가 깃들어있다.

오늘 표충비는 조선의 선조들의 높은 문화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력사유적으로 훌륭히 보존관리되고있다.

상경돌등

상경돌등은 중국 흑룡강성 녕안시 발해진의 발해수도성유적인 상경성 제2절터에 있는 발해의 돌등이다.

8세기 중엽에 만들어진것으로서 현재의 높이는 약 6m 이며 원래의 모습대로 복구해보면 높이는 6.3m에 달하게 된다. 조선력사에서 현재 남아있는 돌등유적으로는 가장 오래고 큰것들중의 하나이며 발해돌등으로는 오직 하나뿐이다.

상경돌등은 검푸른 분출암으로 만든 8각형평면의 받침대와 기둥돌, 불집돌, 등머리의 4개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맨 밑에는 평면이 8각형인 나지막한 바닥돌이 한벌 깔리고 그우에는 밑돌과 가운데돌, 갑돌로 이루어진 받침대가 놓여있다. 가운데돌의 옆면들마다에는 옆에서 본 련꽃모양의 오목이가 하나씩 큼직하게 새겨져있다.

기둥돌은 배부른 둥근기둥형식으로 되여있는데 기둥돌 밑부분에는 엎어놓은 련꽃장식이, 웃부분에는 바로놓은 련꽃장식이 빙 돌아가면서 풍만하게 돋우새겨져있다.

기둥돌우에는 8각정자모양의 불집돌이 경쾌하게 놓여있다. 불집돌에는 8각형의 지붕돌이 덮여져있는데 골기와지붕이다.

상경돌등에는 밑부분으로부터 우로 올라가면서 돌등 각 부분의 크기를 점차 차례줄임하면서 이루어놓은 합리적인 균형, 탐탁한 밑부분과 개방적인 웃부분을 서로 마주 세워놓은 대조적배치 그리고 금강비례, 황금비례, 옹근수비례의 적용 등 여러가지 구성수법들이 적용되였다.

또한 상경돌등에서 바닥돌 한변의 길이는 돌등전체와 부분들의 기준크기로 되고있으며 돌등의 평면과 립면은 원, 3각형, 4각형, 8각형 등 기하학적도형들을 결합하는 도식적구도방법에 잘 맞아떨어진다.

상경돌등에서 특별히 흥미를 끄는것은 돌등의 기둥형식을 고구려에서 류행된 배부른 기둥형식으로 만든것, 8각형의 평면도형을 받침돌과 불집돌에 능숙하게 도입한것, 돌등건축에 고구려자와 같은 35㎝안팎의 단위자를 리용한것, 웅건하고 기백있는 조각수법 등 여러 측면에서 발해문화의 형성발전에 미친 고구려의 문화적영향이 충분히 드러나는 것이다.

금강비례, 황금비례, 옹근수비례

금강비례는 자연에서 1:1.4142… 되는 비례를 말한다. 무리수비례에 속한다. 한변의 길이가 1일 때 다른 한변의 길이가 1.4142… 되는 4각형을 금강비4각형이라고 한다.

황금비례는 자연에서 1:1.616… 되는 비례를 말한다. 한변의 길이가 1일 때 다른 한변의 길이가 1.616… 되는 4각형을 황금비4각형이라고 한다.

옹근수비례는 1:2의 정수비이다.

이 비례들은 력대 건축물에 많이 리용되였다.

이처럼 상경돌등은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계승한 해동성국 발해의 우수한 건축술과 조각술은 물론 당시 세계적으로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발해문화의 발전수준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조선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다.

법주사쌍사자돌등

법주사쌍사자돌등은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후기신라의 돌등이다.

법주사의 희귀한 나무탑인 팔상전주위에는 4개의 돌등이 서있는데 그가운데서도 북쪽에 있는 쌍사자돌등이 유명하다. 돌등의 높이는 3.3m이다.

쌍사자기둥형식의 이 돌등은 8각의 납작한 바닥돌우에 두마리의 사자가 서서 련꽃을 새긴 둥근 밑단을 뒤발로 뻗치고 서서 앞발과 주둥이로 련꽃기둥머리인 불집대돌과 불집돌을 기운차게 떠받들고있는 모양으로 형상되여있다. 사자조각은 맹수의 특징과 운동감을 잘 형상한 우수한것이다. 더우기 하나의 큰 통돌로 기둥밑단인 받침돌과 두마리의 사자 그리고 기둥머리인 불집대돌까지 다듬어낸 솜씨는 조각가의 세련된 기교를 그대로 보여준다.

한편 두마리의 사자가 떠받들고있는 련꽃받침대우의 불집돌은 8각정자건물형식으로 생겨 경쾌하고 시원한 느낌을 준다. 8각형의 지붕돌우에는 둥근 보주가 놓여져있다.

이 돌등은 착상이 기발할뿐아니라 조각이 실감있고 생동하며 부분들의 균형이 잘 잡혀있는것으로 하여 후기신라 돌등가운데서도 대표적인 걸작품의 하나로 꼽히우고있다.

개국사돌등

개국사돌등은 개성시 덕암리 개국사에 있던 고려 초기의 돌등으로서 현재 고려박물관에 있다. 높이가 3.72m로서 조선에 남은 돌등가운데서 비교적 큰것들중의 하나이다. 화강석으로 만든 개국사돌등은 받침대와 기둥돌, 불집돌과 등머리로 이루어져있으며 기본요소들은 모두 평면이 4각형이다.

받침대 한변의 너비는 1.92m이고 그 옆면들마다에는 오목이가 4개씩 새겨졌으며 그 웃면에는 12잎의 엎어놓은 모양의 련꽃이 풍만하게 새겨져있다.

길다란 기둥돌의 평면은 4각형이나 네 모서리를 심하게 다듬어 8각형처럼 보인다. 그리고 기둥돌의 아래웃쪽에는 턱을 지어놓아 목조건물의 주추돌과 주두(기둥머리)처럼 보이게 하였다. 기둥돌우에는 한변의 길이가 1.56m인 불집대들이 놓였으며 밑면에는 꽃잎이 16개이고 끝이 뾰족하며 홑잎의 꽃잎안에 또 다른 꽃잎새김이 있는 활짝 피여오르는 모양의 련꽃이 두텁게 새겨져있다. 불집대돌 웃면의 네 모서리에 기둥이 하나씩 세워져있고 그 우에 네모지붕돌이 놓인 불집돌은 사방이 틔여져있으며 복판에 등불자리가 마련되여있다. 넓고 낮은편인 지붕돌의 처마밑선은 곧고 량쪽으로 가볍게 우로 휘였으며 지붕면과 추녀선도 밑으로 휘여 지붕돌이 퍽 경쾌해보인다.

등머리에는 둥근 보주 한개가 놓여있다.

규모에 어울리게 치레가 간소하고 대범하여 웅건한 느낌을 주는 개국사돌등은 고려 초기 돌건축술의 발전모습을 잘 보여준다.

5) 과학기술

《천상렬차분야지도》

《천상렬차분야지도》는 1395년에 고구려의 석각천문도를 대본으로 하여 만들었다.

일찍부터 천문학을 중시한 고구려는 천문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여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일식과 월식, 류성(별찌)과 혜성(살별)의 움직임, 지어 태양흑점 등 당시로서는 매우 희귀한 천문자료들까지 관측하였으며 풍부한 자료에 기초하여 5세기말～6세기초에 세로 약 2m, 가로 약 1.2m의 돌판우에 천문현상을 새긴 석각천문도를 만들었다.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에는 당시 수도였던 평양의 밤하늘에서 볼수 있었던 1 467개의 별들이 하나의 원안에 282개의 별자리들로 갈라져 표시되였는데 당시의 천문학리론과 지식을 쉽게 파악할수 있게 되였고 천문관측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이 명확히 제시되여 력서편찬에 큰 도움이 되고있었다.

당시 평양성에 보관되여있다가 고구려 말기 외래침략군의 침공때에 류실되여 이 세상에서 영영 자취를 감추었다고 인정되던 천문도의 탁본(돌판우에 종이를 대고 먹을 묻혀 본뜬것)한장이 조선봉건왕조 초기에 발견되였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그것을 대본으로 하고 14세기말의 천문학적실정에 맞게 약간 수정을 가하여 만든것이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너비 122.8㎝, 길이 209.9㎝로서 당시로서는 아주 과학적이고 세밀한 천문도였다. 여기에서는 세차현상 즉 립춘날의 태양위치가 해마다 50.2초씩(근 71년 9개월만에 1°씩) 서쪽으로 옮겨져가는 현상으로 인하여 고구려때와는 달리 별자리들의 위치에 차이가 생겼으므로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천문도의 별자리들을 12.5°씩 돌려놓았다.

별자리구분에는 조선민족이 전통적으로 써오는 수법을 리용하여 동쪽과 북쪽하늘에는 청룡과 현무를, 서쪽과 남쪽하늘에는 백호와 주작을 형성하고 매개 방면을 7개씩의 구획으로 나누어 28수(별자리)를 두었다.

천문도에는 고구려때의 별자리그림에 새로운 수정을 하게 된 내용과 그 근거를 밝힌 글, 중성도(24절기날의 해뜨기 전과 해진 다음에 자오선을 지나가는 별들을 밝힌 그림) 및 우주론 등을 간단히 해설한 글이 별그림의 두리에 우, 아래로 나뉘여 첨부되여있고 28수의 기준별들의 자리표값(북극까지의 거리)도 주어져있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당시 별들의 위치를 빨리 알아내여 천문관측사업을 제때에 정확히 진행할수 있게 하는데서 매우 편리하고 귀중한 천문도문건으로 되였으며 14세기말 조선의 천문관측사업이 매우 주도세밀하였다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천상렬차분야지도》는 그 내용의 정확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일찍부터 세계에 알려졌으며 중세 조선의 천문학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하나로 되고있다.

첨 성 대

첨성대는 글자그대로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곳 즉 오늘의 천문대와 같은것이다.

첨성대는 밑단과 몸체, 기구틀로 이루어졌는데 몸체는 둥글고 밑단은 네모나게 되여있다. 모두 가공한 화강암으로 쌓아졌다. 높이는 약 9.1m이며 밑직경은 약 4.9m, 웃직경은 약 2.9m이다.

밑단은 두단으로 되여있는데 밑단의 네 면은 동서남북의 실제방위와 일치된다.

몸체는 그 겉모양이 꽃병과 같은 아름다운 곡선을 이루고있다. 몸체의 륜곽선은 처음에 수직으로 올라가다가 차츰 몸체의 통이 좁아지면서 곡선으로 올라갔다. 그러다가 전체 높이의 3분의 1정도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좁아들었으며 3분의 2정도 높이에서부터 다시 곧추서는듯이 오르다가 조금 퍼지면서 몸체부분이 끝났다.

몸체는 27개 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매 단의 돌들은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몸체의 남쪽 중간쯤 되는 곳에는 관측대우로 나들기 위한 네모난 구멍이 있다.

몸체우에는 귀틀형식으로 짜서 올려놓은 기구틀이 있으며 그 한변의 길이는 약 2.85m이다. 옛날에는 여기에 여러가지 천문관측기구를 올려놓고 기상관측을 하였다. 이 기구틀도 역시 일정한 방위를 가리키고있다.

첨성대는 해당 시기의 건축술과 천문학의 발전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금속활자

금속활자는 동, 놋, 연, 아연 등 금속을 녹여서 만든 활자이다.

조선민족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민족이다.

11세기말～12세기초 고려에서는 금속주조 및 가공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 글자가 뚜렷이 새겨진 구리돈이 광범히 주조되였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목판인쇄의 부족점을 극복하기 위한 고심어린 연구끝에 마침내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금속활자가 발명되여 인쇄기술발전에서 전환의 길이 열리였다.

고려에서는 금속활자를 리용하여 1170년에 《고금진보대전》이라는 책을 출판하였으며 1234～1241년에는 50권에 달하는 《고금상정례》라는 책을 금속활자로 28부나 인쇄하였다.

1076년에 씌여진 《남명천화상증도가》라는 책은 1239년에 강화도에서 목판으로 다시 인쇄되였는데 그전에 이미 개경에서 금속활자로 출판인쇄된적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13세기 초엽에 이르러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널리 진행되였으며 고려에서 금속활자의 발명시기가 늦어도 12세기 전반기였다는것을 말하여주고있다.

1377년에 고려에서 출판된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직지심경》)은 현재 세계적으로 남아있는 금속활

자로 찍은 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래된것으로 전해지고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는 《직지심경》이 오늘 세계에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찍은 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 책이라는것을 세계각국에 통보하였으며 1972년에 《국제도서의 해》의 행사의 하나로서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책의 력사》종합전람회에 이 책을 전시하였다.

앙부일구

앙부일구는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434년에 리천(1376—1451년), 정초(?—1434년), 정린지(1396—1478년) 등 천문학자들과 기술자들이 협동하여 만든 해시계이다.

앙부일구는 반구모양으로 생겼으며 그가운데에 있는 그림자막대기가 던지는 그림자의 끝점이 반구모양의 면에서 가리키는 위치를 보고 시간과 계절을 알수 있게 한 시계의 한 종류이다.

뚜껑이 없는 가마같이 생긴 해시계이기때문에 앙부일구라고 하였다.

이 시계의 구조는 크게 해그림자를 받는 반구모양의 그릇과 해그림자를 이루게 하는 그림자막대기부분으로 되여있다.

시간을 재려면 이 시계를 수평자세로 놓되 남북방향에 일치되게 정확히 놓아야 한다.

수평으로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해그림자막대기의 앞끝에서부터 추드림선을 드리워서 추의 끝이 반구안면의 밑바닥에 뚫어져있는 작은 구멍과 일치되도록 그릇의 자세를

조절하여야 한다.

시계를 남북방향으로 설치하려면 해그림자가 절기선과 평행으로 이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계가 정확히 설치되면 그림자에 의해 임의의 시각에 시간을 알수 있다.

이 시계가 보여주는 시간은 진태양시［지구자전에 따라 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준점으로 선택한 실제의 태양(진태양)의 시결면중심이 같은 자오선을 계속하여 두번 지나는 기간을 24로 고루 나눈 값］로 된다.

앙부일구는 천구를 그대로 둥글게 축소하여 오차가 적었기때문에 평면그림자판으로 된 해시계보다 정확도가 높았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해시계였다.

이에 대하여 다른 나라의 한 출판물에서는《고대그리스천문학에서 오늘의 시, 분, 초와 같은 시간을 세는 방법을 썼으므로 정밀하고 합리적인 해시계를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실물을 보면 그닥 합리적인것이 못된다. …도꾜 우에노의 과학박물관에 보존되여있는 도자기로 만든 구면해시계(앙부일구)는 조선에서 만든것이다. 그 구조나 구면상에 새겨진 선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있어 리론적으로 완벽하다. …이보다 완벽한 구면해시계는 없었을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앙부일구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보여주는 자랑높은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자 격 루

자격루는 물이 고이는 그릇에 띄워놓은 부표가 물면과 함께 떠오르면서 시간을 알리는 일반 물시계와는 달리 부표의 떠오름운동을 동력으로 하여 거기에 종을 치는 장치들을 결합시켜 저절로 움직이면서 자동적으로 시간을 알려주게 되여있는 물시계의 발전된 형태였다.

자격루는 1434년에 장영실(15세기 전반기)을 비롯한 여러 기술자들이 만들었다.

자격루의 구조와 작용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높은 곳에 두개의 물단지를 놓고 거기에서 단위시간내에 일정한 량으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한 다른 단지 하나를 그밑에 놓았다. 낮은 곳에 있는 단지속에는 물에 뜨게 엷은 동으로 만든 거부기를 넣었는데 이 거부기는 단지에 물이 차는데 따라 떠올라 일정한 자리에 있는 동으로 만든 구(알)를 민다. 구는 굴러서 그밑에 장치한 철판에 떨어지면서 철판의 한쪽을 누른다. 이때 철판의 다른 한쪽이 들리면서 사점이라는 인형의 팔을 밀치면 사점은 앞에 걸린 징을 쳐서 점을 알린다. 1점은 24분이므로 24분에 한번씩 점을 친다.

이와 꼭 같은 방법으로 낮에는 사시라는 인형들이 종을 치고 밤에는 사경이라는 인형들이 북을 쳐서 2시간에 한번씩 《시》로서의 경을 알린다. 또한 매 시간에 따라 해당한 동물모조품들이 나타나고 동, 서, 남, 북에 자리잡고있는 인형(옥녀)이 맡은 시간에 방울을 울리게 되여있다.

이와 같이 자격루는 정밀한 전동장치에 의하여 움직이였다. 기록에 의하면 전동장치는 주로 지레대장치였으며 그 수는 150～200개였고 여기에 쓰인 동으로 만든 구는 작은것과 큰것이 각각 37개였다. 그리고 높은 곳의 단지에서 떨어지는 물의 량은 1시간에 14.8L정도였다.

노비출신의 기술자 장영실

장영실(15세기 전반기)은 천문관측기구를 창안제작한 발명가이며 기술자이다. 천대받는 노비출신인 그는 천문관측기구들과 정교한 금속활자, 악기제작사업에 참가하여 15세기 조선의 과학기술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려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는 리천(1376—1451년) 등 기술자들과 함께 1432년에 나무로 간의를 만들고 그것을 리용하여 한성(서울)의 경위도를 측정하고 거듭 실험을 거쳐 그를 확인하였다. 오래동안의 연구를 거듭하던 끝에 그는 대간의, 소간의, 혼상, 혼천의 등 천문관측기구를 구리로 만드는데 성공하였으며 시간측정기구인 천평일구, 정남일구, 앙부일구, 일성정시의, 자격루 등을 창안제작하였다. 구리로 만든 이 기구들은 매우 정밀하고 정확한것이였다. 그중 보루각에 설치한 자격루는 물의 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돌아가면서 시간을 정확히 알리는 기계적장치였다. 그는 또한 1434년 새로운 형태의 금속활자를 만드는데 달라붙어 두달 남짓한 사이에 20여만자의 구리활자(갑인자)를 주조하여 출판인쇄기술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와 함께 악기를 창안제작하는데서도 높은 기술을 발휘하였으며 여러 기술분야에서 자기의 뛰여난 재능을 발휘하여 조선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자격루는 15세기초까지 조선의 기술분야에서 도달한 성과에 기초하여 만들어진것으로서 조선인민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측 우 기

조선인민이 반만년의 오랜 력사적기간에 창조하여놓은 민족문화유산가운데는 측우기도 있다.

비내림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측우기는 1441년 천문, 기상, 지진 등을 관측하는 일을 맡은 서운관에서 만들어진것으로서 높이는 2자(약 40㎝), 직경은 8치(약 16㎝)이다.

측우기는 둥근 통모양으로 된 그릇을 대우에 올려놓고 비물을 받아 그 량을 재게끔 되였다.

이러한 측우기를 중앙과 지방의 관청마당안에 설치하였는데 중앙에서는 철이나 동으로, 지방에서는 사기나 질그릇으로 만들었다.

각 고을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한 시간과 개인 시간및 그동안의 비내림량을 측정하여 해당한 도에 보고하고 각 도에서는 중앙의 서운관에 집결시켜 장악하고 기록하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측우기에 의한 비내림량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방법과 측정결과를 종합하는 제도는 조선이 제일 앞섰다. 유럽에서는 1639년에 이딸리아사람인 베네데또 까스뗄리가 측우기를 만들었다.

측우기는 조선인민의 창조적재능이 깃들어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기리고차

기리고차는 수레가 굴러가면서 자동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구이다.

수레바퀴의 회전수에 따라 종과 북이 울리게 되여있는 기리고차는 1441년 3월에 조선봉건왕조의 세종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기리고차의 구조를 보면 10자둘레의 바퀴우에 3개의 회전치차들이 차례로 련결되였는데 이 치차들은 첫 치차가 15바퀴 회전하면 가운데치차는 1바퀴, 가운데치차가 10바퀴 돌면 마지막치차는 1바퀴 회전하도록 설계되였다. 종과 북을 치는 기구는 가운데치차와 끝치차에 설치되였다. 수레우에 탄 사람은 종소리와 북소리를 듣고 해당 거리를 알수 있었다.

조선의 선조들은 기리고차를 리용하여 각이한 지점까지의 거리들과 각 지역 호상간의 거리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종전에 알고있던 거리들도 재확정하였다.

기리고차를 리용하여 측정한 거리들이 오늘날에 측정한 거리와 대비해보아도 크게 차이가 없는것은 당시 이 측정방법이 상당히 정확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당시로서는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이러한 기리고차를 발명할수 있은것은 조선의 선조들이 자동물시계나 해시계와 같은 여러가지 자동장치들을 창안하던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들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결과였다.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김정호(19세기초—1864년)가 1861년에 만든 조선지도이다. 22첩으로 되여있으며 그의 호를 따라 《고산자지도》라고도 한다.

그는 자신이 이미 1834년에 제작한《청구도》(조선지도)의 부족점을 극복하고 보다 완성된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27년간이나 전국을 일일이 답사하면서 현지조사와 측량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얻은 자료들에 기초하여 1861년에 1:162 000의 축척으로 된 《대동여지도》를 편찬하여 내놓았다.

《대동여지도》는 백두산으로부터 제주도에 이르는 나라의 령토를 위도선방향에서 22개의 단으로 나누어 그 하나를 1첩으로 하고 이것을 경도선방향으로 폭이 80리 되게 나누어 접게 되여있다. 따라서 모든 도폭들을 펼쳐서 이어놓으면 33㎡의 커다란 한폭의 조선전도가 되고 접어놓으면 매 편이 남북 120리, 동서 80리씩 되는 지역도가 된다.

이 지도에는 조선의 자연지리적조건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력사 등 각이한 분야의 내용이 설명주기에 따라 세분화되여 밝혀져있다.

《대동여지도》는 19세기 전반기 조선의 지리학부문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력사 등 각 분야의 내용들을 매우 폭넓고 풍부히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당시의 사회생활전반을 연구하는데서 가치있는 민족문화유산으로 되고있다.

고려자기

고려자기는 고려시기에 제작된 자기를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고려자기는 색갈과 장식기법에 따라 청자기, 백자기, 검은자기, 밤색자기, 진홍자기, 상감자기, 분장자기, 화금자기 등 매우 다양한 종류를 이루고있다.

고려자기의 고유한 특성은 우선 그 색이 특출한것이다. 고려자기의 다양하고 조화로운 색갈가운데서 제일 아름답고 유명한것은 비취색이다.

비취옥의 색갈과 같은 이 비취색은 은은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고상한것이 특징이다.

이 비취색은 자기를 구울 때 바탕흙과 사기물에 포함된 철분이 화학적으로 호상작용하여 얻어지는것으로서 도자공들의 오랜 숙련과 높은 기술에 의하여 이룩된다. 이런 색을 가진 자기는 고려자기의 대명사로 알려진 청자기 또는 비색자기이다.

고려자기의 특성은 또한 그 문양이 특출한데 있다. 당시 조선인민들은 도자기에 홈파기, 양각, 음각, 투각, 인화, 선화, 상감, 붓으로 그리기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여 다채로운 문양을 아로새겼다.

구름, 학, 갈대, 기러기, 버들, 원앙새, 국화, 포도, 련꽃, 모란 등 여러가지 소재의 문양들을 그릇의 모양에 맞게 새겨넣었다.

특히 정교하게 새겨놓은 무늬들이 맑고 밝은 사기물을

통하여 은은히 비쳐보이는 상감장식의 아름다운 효과는 고려자기에서만 볼수 있는것이다.

고려자기는 또한 그 모양이 우아하고 기발하다. 고려자기는 그릇의 모양을 동물이나 식물의 형상을 본따서 만들거나 혹은 뚜껑이나 손잡이, 밑굽 같은 부분에 이러저러한 물체의 형태를 붙여 예술적효과를 돋구었다.

참대순, 석류, 조롱박, 참외 같은 식물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주전자와 꽃을 형상한 잔과 잔대, 비둘기, 원앙새, 원숭이, 오리 같은 짐승의 모양과 인형으로 된 연적, 기린을 조각한 향로, 룡대가리를 형상한 붓꽂이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고려자기는 이러한 특출한 색과 문양, 모양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여 우아하고 고상한 공예품으로 일찍부터 세상에 이름을 떨쳐왔다.

중국 송나라사람이 쓴 《고려도경》(1124년)에 고려상감청자가 매우 우수하다는것이 강조되여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에는 왜적들이 고려자기를 둘도 없는 보물로 여기면서 막대한 량의 자기를 략탈하여갔다. 특히 고려자기는 19세기말부터 세계에 《일등예술품》, 《일등골동품》으로 널리 알려져 제국주의자들의 략탈의 대상으로 되였다.

조선의 민족문화유산가운데서 고려자기는 고구려벽화무덤과 함께 세계에 널리 알려져있는 유산의 하나이다.

6) 무기, 무장

고리자루긴칼

고리자루긴칼은 칼자루의 뒤끝이 둥근고리로 되여있는 고구려의 대표적인 긴칼이다.

고리의 모양에 따라 민고리자루긴칼, 세고리자루긴칼, 룡고리자루긴칼, 세잎고리자루긴칼 등으로 나누어볼수 있다.

민고리자루긴칼은 고리형태가 비교적 단순하고 소박하며 큰 둥근고리만으로 되여있고 세고리자루긴칼은 날이 곧고 자루의 끝에 세개의 둥근고리가 있는것이다.

세고리자루긴칼은 자루부분에 물결무늬를 찍어낸 금동판 또는 은동판을 씌우고 칼집에는 비녀 또는 송곳모양의 물건을 붙여 장식적효과를 높였다.

룡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룡을 형상하였는데 룡을 하나 새긴것과 둘 새긴것이 있으며 세잎고리자루긴칼은 고리안에 세잎사귀의 모양을 형상한것인데 칼집부분에 여러가지 장식을 하여 무기로서의 용도는 물론 치레용으로서의 예술적솜씨도 돋구었다.

고구려의 고리자루긴칼은 백제나 신라 그리고 일본땅에도 널리 보급되여 사용되였다. 고리자루긴칼은 고구려금속가공기술의 발전된 면모를 잘 보여줄뿐만아니라 우수한 무기무장을 창조하여 외래침략자들을 쳐부시고 천년강국 고구려의 위용을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한 고구려인민들의 애국심과 창발성이 깃들어있는 유산이다.

쇠 뇌

쇠뇌는 기계적으로 동작하는 활을 말한다.

조선인민은 고구려시기에 고대시기의 사격무기제작기술을 계승발전시켜 우수한 사격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B.C. 3세기～A.D. 1세기의 고구려유적들에서는 쇠뇌유물이 발견되였는데 그러한것들은 구조와 동작원리 및 가공기술이 매우 우수하였다.

특히 오늘날의 무기에서 볼수 있는 조준선까지 새겨져있어 세상사람들의 주의를 끌고있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한 병기학자는 《…그 구조가 간단하고 교묘한것으로 하여 현대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오늘의 소총(보총)처럼 동작하니 흥미가 있다. 2 000여년전의 고안이라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다. 이것만 보아도 병기전문가라면 현대과학에만 만족하지 말고 고대사람들의 고안도 연구하여야 할것이다.》라고 평가하였던것이다.

쇠뇌는 조선민족이 선행시기에 이루어진 군사기술유산들을 끊임없이 계승발전시켜 창조한 귀중한 유산이다.

신 기 전

신기전은 조선봉건왕조 초기인 15세기초에 창안제작된 다계단로케트식불화살이다. 이전시기부터 쓰이여온 불화살들의 발전성과에 기초하여 조선봉건왕조에서 새로 만든 소이무기(불지르기무기)이다.

신기전은 크기와 형태 및 반작용화약통의 구조에 따라 소신기전, 중신기전, 대신기전의 세가지로 나뉘여진다.

소신기전은 그의 반작용화약통이 약통과 외통 두 부분으로 되여있어 발사되면 약통이 먼저 반작용하고 뒤따라 외통이 반작용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되여있었다.

중신기전은 반작용화약통이 약통, 외통 및 소발화의 세 부분으로 되여있어 발사되면 약통이 먼저 반작용하고 뒤따라 외통이 반작용하며 마지막으로 소발화가 반작용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되여있었다.

대신기전은 그의 반작용화약통이 약통, 외통, 지화 및 소발화의 네 부분으로 되여있어 발사되면 약통이 먼저 반작용하고 다음에 외통이, 세번째로 지화, 마지막에 소발화가 반작용하여 화살이 날아가게 되여있었다.

신기전의 설계치수는 15세기 중엽에 국가적으로 규격화 및 표준화되였다.

신기전은 전쟁터들에서 목표에 불을 지르는 무기로 쓰이였을뿐아니라 《기화》라고도 하여 하늘높이 날아오르면서 신호수단으로도 많이 쓰이였다.

신기전은 주로 화차에 설치한 신기전기로 발사하였는데 단번에 100개까지의 화살을 련이어 발사할수도 있었으므로 그 위력이 대단하였다.

신기전은 특히 16세기말 임진조국전쟁시기 왜적이 일시적으로 강점한 경주성을 되찾는 전투와 행주산성방어전투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였다.

신기전은 조선민족의 자랑높은 문화유산이다.

비격진천뢰

비격진천뢰는 임진조국전쟁의 첫해인 1592년부터 만들어져 전쟁전기간 사용된 시한탄원리를 가진 포탄이다.

당시 재능있는 무기제조기술자였던 리장손(16세기)은 종래부터 사용해오던 진천뢰(하늘을 뒤흔드는 벼락이라는 뜻)를 개량하여 완구포(우가 벌어지고 밑이 좁은 굽높은 그릇처럼 생긴 일종의 곡사포)로써 발사할수 있는 비격진천뢰(날아가 폭발하여 치는 진천뢰)를 만들었다.

비격진천뢰는 이전시기의 진천뢰와는 달리 대통이라고 하는 신관장치에 의해 폭발시간을 조절할수 있게 되여있었다.

신관장치를 보면 대통에는 나무나사대가 두개씩 붙어다니는데 그 한 나사대에는 나사홈이 10개, 다른 나사대에는 나사홈이 15개 패워져있고 매개 나사대에는 나사홈을 따라 불심지가 감겨져있었다.

그러므로 빨리 폭파시키려면 10개의 나사홈이 패워져있는 나사대를,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폭발시키려면 15개의 나사홈이 패워져있는 나사대를 진천뢰에 설치한다. 이러한 비격진천뢰는 대, 중, 소의 완구포에 의해 발사되였는데 사격거리는 5 000～6 000보(750m～900m)정도였다.

비격진천뢰와 같은 신관장치를 가진 포탄은 당시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하기에 1592년 9월 적들이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던 경주성탈환전투에서 비격진천뢰에 의해 한번에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적들은 비격진천뢰의 위력에 겁을 먹고 《귀신의 조화》라고 하면서 도망쳤던것이다.

일본의 한 병기학자는 비격진천뢰에 대하여 이 포탄의 교묘한 점은 신관장치이며 이것은 당시에 있어서는 놀라지 않을수 없는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처럼 세계무기발전력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최초의 시한탄인 비격진천뢰는 조선민족의 창조적지혜와 애국심이 깃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의 하나이다.

거 북 선

겉모양이 거부기처럼 생긴 거북선은 임진조국전쟁시기에 애국명장 리순신(1545—1598년)과 슬기로운 조선인민에 의하여 완성된 세계최초의 철갑선이다.

거북선은 앞선 시기의 함선건조에서와 바다싸움에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1413년에 이미 그 원형이 제작되여 오랜 세월의 개조과정을 거쳐 임진조국전쟁이 일어난 해인 1592년에 완성된 함선이였다.

배머리에 룡대가리를 설치하고 그 아가리로부터 불과 연기를 내뿜게 한 형식은 동서고금에 찾아볼수 없는것으로서 오직 거북선에만 있는 독특한 형식이였다.

거북선의 구조에 대하여서는 그 개조완성을 직접 지휘한 리순신장군의 생애와 활동에 대한 저서 《리충무공전서》에 자세히 전한다.

그에 의하면 배밑판의 길이는 19.3m, 배머리의 너비는 4.31m, 배꼬리의 너비는 3.16m이며 좌우에 노가 각각 10개씩 배치되여있었다. 거북선의 총길이는 35m, 너비는 11.8m, 높이는 5.2m이다. 철판으로 씌운 배등에는 송곳

을 빈틈없이 꽂아넣고 갈대로 자리를 엮어 위장하였다.

거북선은 군사들과 전투기술기재들이 배안에 있어 배안에서는 밖을 볼수 있었으나 밖에서는 배안을 볼수 없게 되여있었다. 그리고 앞좌우에는 70여개의 화구(포를 쏠수 있는 구멍)가 있었다.

이처럼 거북선은 당시로서는 비할데없이 위력한 병선이였으므로 임진조국전쟁시기 바다싸움들에서 자기의 위력을 발휘하였다.

유럽에서 철갑선의 사용은 1782년 에스빠냐와 프랑스함대가 철갑선을 사용한것이 처음이였다.

거북선은 일찌부터 바다를 개척하고 굳건히 지켜온 조선의 선조들이 독특하게 만들어낸 병선으로서 조선인민의 애국심과 창조적재능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하나이다.

《진짜 군신은 리순신》

로일전쟁때(1904—1905년) 짜리로씨야의 발뜨함대를 조선동해에서 격파한것으로 하여 일본에서 군신(군사를 귀신처럼 잘 알고 적용하는 인물이라는 뜻)으로 떠받들리운 해군제독 도고 헤이하찌로는 어느 한 모임에서 1805년에 있은 트라팔가르해전때 프랑스—에스빠냐함대를 격파하여 명장으로 알려진 영국의 해군제독 넬슨에 비할만 한 영웅이라는 칭찬을 받자 《칭찬을 해주어서 고마우나 나로서 말한다면 넬슨이란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니다. 진짜 군신이란 칭호를 받을만한 제독이 있다면 그것은 리순신일것이다. 리순신에 비하면 나는 하사관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비차(비거)

《날아가는 수레》인 비차는 임진조국전쟁초기에 창안리용된것으로서 사람이 타고 비행할수 있는 일종의 활공기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임진조국전쟁초기인 1592년 10월초에 왜적이 경상남도의 진주성을 포위하였을 때 비차에 사람이 타고 30리를 날아 외부와의 련계를 보장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이보다 앞서 13세기와 14세기에도 사람을 태운 큰 연을 리용한 사실이 전해지고있다.

임진조국전쟁시기의 비차는 사람이 탈수 있게끔 나무대에다 가죽을 씌워 만든것인데 그 생김새는 나래치지 않고 하늘에 떠있는 수리개나 따오기모양으로 되여있었다.

비차의 중심부에는 날개를 움직이는 장치, 바람을 만드는 풀무와 그것을 움직이는 장치, 바람을 저장하였다가 내쏘는 공기주머니와 그것을 동작시키는 장치 등이 설치되고 이 장치들을 다루는 사람을 포함하여 네사람이 앉을 자리가 갖추어져있었다. 비차의 엄지날개와 꼬리날개들은 중심부 및 비차몸체와 여러개의 줄들에 의해 련결되여있어 그것들에 의하여 움직일수 있었다. 비차몸체의 아래쪽에는 수레바퀴가 붙어있어 땅우에서 활주도 할수 있었다.

비차는 높은 령마루 또는 산성의 평지 같은데서 활주하다가 활공을 시작하면 보통 300m가량 활공할수 있었다.

비차와 같은 《나는 수레》에 대한 견해는 중세기 중국, 도이췰란드에서도 있었으나 실용화되지 못하였다.

비차는 조선민족의 슬기와 재능을 뚜렷이 과시하였을뿐아니라 세계항공사에서도 의의있는 발명이였다.

원시 및 고대시기의
유적유물

검은모루유적과 유적에서 발견된 짐승뼈들과 타제석기들

표대유적 신석기시대 질그릇가마터

룡산리순장무덤

반달칼　　갈돌　　대패날　　가락바퀴

로동도구들

비파형창끝과 비파형단검들

좁은놋단검들

단 군 릉

단군의 화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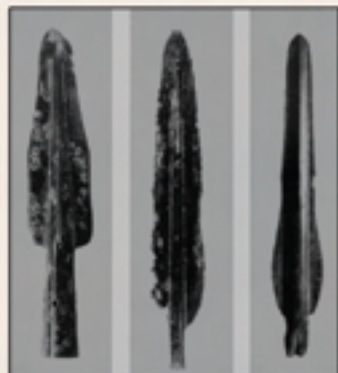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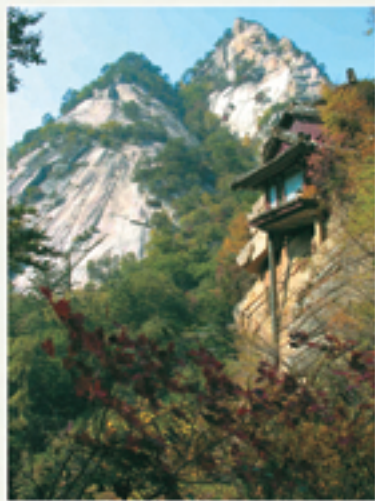
개건기념비

검 탑

돌범조각상

중세시기의 유적유물

대 동 문

련 광 정

을 밀 대

보 덕 암

링전사 대웅전의 외부와 내부

묘향산의 《팔만대장경》 보존고

묘향산의 다라니석당과 유점사종

룡흥사 대웅전의 외경과 외부두공

백 상 루

개 심 사

석굴암의 내부정면

정 릉 사

평양성

황룡산성

대성산성

동명왕릉

왕건왕릉

공 민 왕 릉

장 군 무 덤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의
벽 화

수산리벽화무덤의
녀자주인공

청 룡

현 무

백 호

주 작

강서세무덤의 벽화

묘향산 보현사8각13층탑

광개토왕릉비

다 보 탑

석 가 탑

북관대첩비각과 북관대첩비

화엄사4사자탑 전경과 1층탑몸조각

표 충 비

상경돌등

개국사돌등

천상렬차분야지도

개성시에 있는 첨성대축대유적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
(《직지심경》)

금속활자

측 우 기

대동여지도

앙부일구

거북선(모형)

쇠 뇌

비격진천뢰

조선의 유적유물

집 필: 조대일

편 집: 안수영

낸 곳: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국문출판사

인 쇄: 2013년 2월 20일

발 행: 2013년 2월 28일

ㄱ-3835001

전자우편(E-mail):flph@star-co.net.kp

http://www.naenara.com.kp

조선 · 평양

주체102(2013)년

ISBN 978-9946-0-1045-8

9 789946 010458 >